



불교 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09년 7월 5일(일)
윤력 윤5월 13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서진업(원승)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3년 제116호

방생법회 법어

“보살 정신으로 이웃 고통 살피야”



효강 종령 예하

지난 49일 동안 나라를 위한 호국일념과 조상들의 영령을 추복하고 유언·무연중생의 영식천도를 위하여 용맹정진하시고 이제 원만히 회향하신 여러분들의 공덕이 오늘의 방생법회로써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총지중은 창종 이래 우리 종단의 종지로써나, 하나님의 고통 해탈이 아니라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여 일체 중생의 복락을 위하여 불공공덕을 회향해 왔습니다.

우리 총지중에서는 일찍부터 매년 49일 동안 진호국가 불사를 비롯하여 조국의 평화 통일과 재난불생, 산업발전의 염원을 담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불공을 해 왔습니다.

오늘의 이 방생법회도 그러한 의미를 담은 법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승 몇 마리를 방생한다고 이 사회가 당장 달라지고 온 중생이 고통의 굴레에서 해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법회를 통하여 이 사회의 모든 무명 중생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또한 그 중생의 하나인 나 자신을 비추어보아야 합니다. 인간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는 이 사회가 절대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업중생으로서 인연의 굴레에 함께

부여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와 이타의 보살정신으로 이웃의 고통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때에 극락정토가 이루어지며 나의 무명과 고통도 저절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방생법회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해탈을 위한 법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생의 상징적 의미를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인간방생의 대열에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법신비로자나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공덕이 널리 미치어 선망부모님과 조상님들이 극락정토의 구품연대에 태어나시고, 가족과 권속들은 인락길상하오며, 일체 재난은 즉시 소멸되고 사업은 더욱 번창하며, 지혜와 수복은 수미산을 더하여 청정한 가택도 량으로 거듭 나기를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제8회 경로법회 내달 25일 울진 백암 한화콘도서 전국 각 교구 어르신 500여명 모시고 위로 잔치



▲제7회 경로법회에서 분장 공연을 하고 있다.

불교총지중은 오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경북 울진 백암 한화콘도에서 제8회 경로법회를 개최한다.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로법회엔 전국

각 교구의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로법회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입제식과 노래 경연대회, 각 사원 장기 자랑, 저녁정승, 연예인 공연 등이 진행되며, 이튿날엔 은천음악

회향식, 관불이 이어진다. 효강 종령예하는 “경로법회를 통해 모든 보살님들이 공(空)의 세계를 깨달아 해탈하시고, 가족과 친척, 이웃을 불법으로 섭수하여 행복이 가득한 불국정토가

성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보살님과 각 자님들께서 법회기간 동안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며 “이번 경로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고 핵가족화, 산업화로 메말라가는 가족사랑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이해숙 교무는 “종단 교도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각 지역 사원교도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법회를 준비했다”며 “행사기간 동안 어르신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종단 주관으로 격년제로 열리는 경로법회는 전국 각 사원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공연을 올리고 다양한 위로 공연을 열어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전국 사원과 교도간 결속을 다지는 등 종단 이미지 제고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하반기 49불공 회향 방생 대법회

“간탐심을 보리심으로 만드는 정성스런 일”



▲총기 37년 방생 모습.

불교총지중 전국 각 교구는 7월 16일 총기 38년 하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 회향 방생 대법회를 병행한다.

이번 방생대법회는 서울경

인 교구가 강원도 양양 낙산사 인근에서, 부산경남 교구와 충청전라 교구가 전북 진안 용담에서, 대구경북 교구가 경북 문경 등지에서 각각

행사를 실시한다.

효강 종령 예하는 이번 방생대법회 관련 법어에서 “방생 의식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일깨우고 간탐심을 보리심으로 전환하는 정성스런 일”이라며 “우리 진언행자들은 이번 방생법회를 통해 생명존중 사상을 고양하고 아울러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불사에 무루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방생은 목은 죄업을 참회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의 자비심을 배우는 자리”라며 “이번 방생법회 동참 공덕으로 나와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 성불할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49일 불공 오는 15일 회향

불교총지중은 오는 7월 15일 전국 사원에서 총기 38년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회향불사를 병행한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한 진호국가불공은 한 해 상·하반기 각각 49일간 2회 실시된다.

종조법설집엔 “49일불공 정진의 1차 목적은 나라발전과 호국에 있다. 부국강병으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사이므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만약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르게 되도록 회사하고 서원해야 한다.

2차 목적은 개인적인 것으로, 조상을 위한 천도불공과 자녀 잘되기를 소원하는 서원 불공이라 할 수 있다. 상반기 49일불공이 ‘자녀 잘되기’를 기원하고, 하반기 49일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발원하는 불공기간이다.”라고 설명해 있다.

“생태환경보호-탐구정신 배양”

제19회 총지중 학생 수련법회 보령 일대서



▲지나해 남해에서 열린 여름수련회.

불교총지중은 오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충남 보령 청소년수련관 일대에서 여름 청소년 수련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이번 수련법회에선 종단산하 전국 각 사원의 어린이와 청소년(초·중·고), 종립 동해중학교 불교

반 학생들이 대상으로 수행과 공동체 교육, 자연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깨끗한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용두해수욕장 인근에서 열리는 이번 여름수련법회는 청정 자연속에서 청소년들이 환경보호와 탐구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입제식과 종단소개를 비롯해 ‘음미나 빈메를’ 시경, 조석 정승, 영주 만들기, 모듬활동, 아트프션, 석탄박물관 견학, 돌조각공원 탐방, 해수욕,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이 마련돼 있다.

이번 수련법회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자는 “수련법회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총지중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긍정적 사고방식과 화합 단결정신을 함양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지중은 이번 수련법회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프로그램 진행을 도울 지도교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로는 서울 통리원으로 하면 된다.

◆ 참가, 자원봉사 문의 : 02)552-1080 서울 통리원 / 장동욱 교무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방생 대법회

예로부터 불교도들은 방생계(放生契)를 조직하여 해마다 일정한 때를 정해 방생회(放生會)를 열어 왔습니다. 방생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로 이끌고 소외받는 이웃을 돕는 자리아타행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금번에 있을 방생에 무루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소원성취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서울·경인교구]

서울 총지사
(7월 16일 강원도 양양 낙산사 일대)
그외 사원 별도 시행

[부산·경남교구/충청·전라교구]

◆ 일시: 7월 16일
◆ 장소: 전북 진안 용담댐

[대구·경북교구]

◆ 일시: 7월 16일
◆ 장소: 경북 문경 인근



사설

종립 동해중학교 문제를 보며

동해중학교는 총지종이 1989년에 인수하여 지금껏 운영해 오고 있는 종립학교이다. 동해중학교가 총지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중하다. 교육과 복지가 현대 포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 면에서 동해중학교는 총지종이 현대적 포교의 첫 발을 내디딘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인수 당시 상당한 금액을 소요하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동해중학교의 운영 실태는 실랑을 금할 수가 없다. 인수 당시는 부산에서 최고가는 명문중학교로서 주변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소망하던 학교였으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명성이 퇴색한 정도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기피하는 학교가 되었다. 학생과 학부모들만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명문중학교 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동해중학교 동문회이다. 모교에 대한 사랑이 대한민국의 그 어느 중학교보다 남다른 동문회에서는 학교에 대한 애정으로 학교장, 재단이사장, 종단에 여러 차례 걸쳐서 학교 문제의 개선을 여러번 호소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동안 종단이 설립 이후 재정적 지원은 했지만 구체적인 교육 이념과 방향성 수립 부재로 학교를 통한 포교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종단은 이제부터라도 재단 이사회를 통하여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내실있는 종교교육을 실시해 학부모나 졸업생을 종단의 교도로 만들고 학교를 적법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제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근 동문회와 종단, 학부모, 전임 교장 및 교사들이 공동으로 학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발전위원회의 설립 이후에도 사태의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간 학교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던 이들이 학교발전위원회의 출범에 위기를 느끼고 뭉치를 부리고 있다. 학교장은 발전위원회 창립 소식을 담은 총지종보의 학교 내 배포를 금지시켰으며, 발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교사의 포교 및 학생활동을 금지, 방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에서는 형식적인 조치만 취할 뿐 학교장의 이러한 반종단적인 행위를 묵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최근 부산시 관할 교육청 정기감사에서 동해중학교의 회계 비리 및 회계담당자의 권력남용이 확인되어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결론 났다. 이로 인해 동해중학교는 향후 수년 간 교사들의 월급 외에는 어떤 재정적 지원도 받지 어려운 지경에 처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동문회에 알려지자 동문들은 매우 격앙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곧 종단에 항의 성명서를 내고 항의방문을 할 것이라고 한다. 작금의 상황으로 보아 종단이 동해중학교 문제로 인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종단이 수모를 당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문제를 개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학교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학교에 대해 견적이 있는 인사들이 학교문제에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 종단은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학교에 관여하고 있는데 재단이사들은 과연 학교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종단과 재단 이사들은 작금의 학교 문제를 직시하고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종단협의회 이사회 개최

진각종 혜정 정사 부회장 선출



▲6월 26일 열린 종단협의회 2차 이사회 장면.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6월 26일 조계사내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회 만장일치로 진각종 신임 혜정 통리원장, 진각종 혜정 통리원장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이와함께 경제난극복, 국민화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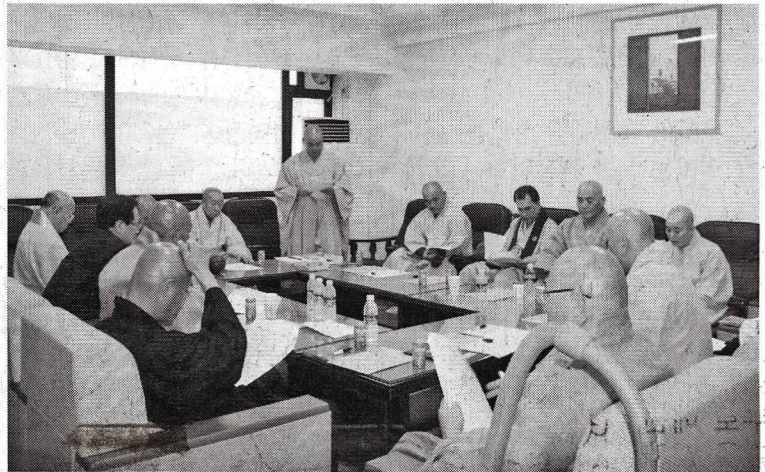
원법회 진행보고의 건, 제2차 세계불교포럼 참가 보고의 건, 제12차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대회 보고의 건,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보고의 건 등이 간략한 설명으로 보고되었다.

전국 불교 합창단 연합회결성 보고의 건에서는 지관스님이 김귀련(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및 부회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조계종 지관스님, 총지종 원승 통리원장, 진각종 혜정 통리원장 등 각 종단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한일불교協, 제2차 상임이사회

여주 대회 관련 재무보고 등 논의



▲한일불교문화교류 협의회가 6월 28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사)한일불교문화교류 협의회는 6월 28일 종로 견지동 사무국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여주 신륵사 대회 관련 행사비용과 인류화합공생 축원비 건립비용에 대한 비용 보고의 건 등이 있었다. 회의록은 만장일치로 안건은 통과되었다. 이날 회의엔 총지종 원승 통리원장, 진각종 혜정 통리원장, 관음종 흥과 총무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진언수행의 길

준제진언은 준제관을 보살의 진언을 말한다. 준제관을 보살은 관세음보살의 화신(化身)인 육관음(六觀音) 가운데 한 분이다. 관세음보살의 청정본성을 나타낸 보살이다. '준제'는 '정정'의 뜻으로 심성(心性)의 청정함을 찬탄하는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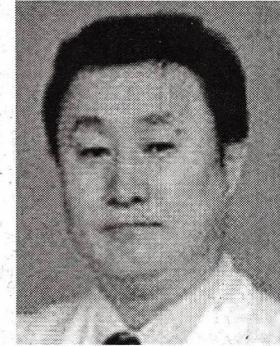
그 덕성(德性)을 찬탄하여 밀교에서는 칠구지불모(七俱指佛母)라고 부른다. 칠구지는 7

억을 가리키는 말로 준제보살의 광대한 덕을 나타내고 있다. 준제진언은 '나무 싹타남 삼막삼 못다 구치남 단아타 음 지레주레 준제 사바하 부립'이다.

경전에서 준제진언을 육차진언과 함께 지송하면 상생적 공덕이 있다고 설하고 있으므로 총지종에서는 육차대명왕진언과 함께 준제진언을 지송하고 있다. 이 준제진언의 의례는 총지종 소의 의례서인 (현밀원통성 불심요집)에 근거하고 있다.

홍성화 각자 중앙일보 포브스코리아,

대한민국 100대 명인에 선정



홍성화 교수

서울 총지사 정광행(김진완) 보살의 3남 홍성화 각자가 중앙일보 포브스코리아 선정 대한민국 100대 명인에 등재됐다.

삼성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홍성화 교수는 난청(청력소실), 중이염, 청신경 종양 분야 전문의로 이번 100대 명인에 선정됐으며, 최근 중앙일보에 홍 교수의 '인공의우 이식술' 현안이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홍 성화 교수는 그동안 인공의우 이식술로 선천성 난

청을 앓던 여러 어린이들을 비롯한 환자들이 세상과 소리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살행을 펼쳐 왔다.

홍 교수는 1996년 서울대 대학원 의학과 박사, 1993~94년 네덜란드 유트레흐트 대 연수, 1996~98 미국 아이오와대 이비인후과 및 신경생물학과 연수, <두부 외상 후 발생한 외상성 등골 상부 구조 골절>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지)의 국내외 논문을 다수 발표한 바 있다.

홍 교수의 모친 정광행 보살은 원정 대종사 창종 당시부터 교도로 진언수행을 해 온 원로 보살로, 가족이 함께 모범적인 신행을 해오고 있다. 특히 둘째 며느리 손경옥 보살은 총지사 교도로 불공배마다 항상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원에 오는 등 고부간 사랑과 효심이 극진해 주의 칭송을 받고 있다.

종조법설

법시공덕(法施功德)

법시공덕은 삼종시(三種施) 가운데 최상이라고 경(經)에 설하고 부처님께서도 성도(成道)하신 후 먼저 다섯사람을 제도(濟度)하여 불법승(佛法僧) 상보(三寶)가 서게 되었으므로 우리 교에서도 누구든지 다섯집을 제도하여야 하느니라. 그 복덕은 부처님과 같이 세계(世世)로 무궁하고 현재에서도 결정코 소원이 성취되느니라.

알림방

- 6일부터 12일까지 월초불공이 있습니다.
15일은 하반기 49일불공 회향일입니다.
22~24일까지 충남 보령 일대에서 어린이 청소년 수련법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문의는 통리원 02)552-10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총지사 이인성 각자님 모친 정심사 박옥란 보살님께서 7월 5일 속한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죽비소리

모든 현상은 허망하다

무릇 있는 바 모든 현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현상이 진실상이 아닌 줄을 보면 곧여래를 보리라.
만일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이 사람은 싹된 도를 행하는 지라 여래를 길이 볼 수 없으리라.
일체의 유휘법은 끝결같고 환과 같으며, 거품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갯불과 같은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이다.

(금강경 金剛經)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Table with 4 columns of donor names and amounts. Includes names like 개천사 무명씨, 기로원 상지화, 법천사 시정, 정각사 박수빈, 정인순, etc.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돌기에 사용됩니다.

풍경소리

부모



부처님이 제자와 산책을 하다가 말씀하셨다. "고요한 밤의 달과 저 별빛이 아름답지 않느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달과 별빛 아래서 부처님과 걷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같이 걷는 것이 행복이라 말했느냐? 너의 눈으로 저 달과 별빛을 보게 한 것은 부모님이니라.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심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 김원각(시인)

지혜로운 사람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해서 우물할 것도, 고통 속에서 산다고 해서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때가 바로 공부할 때임을 알아차려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 관후 스님 / 해인사 장경판전 장주

떠나려 하는데



사람들은 기차나 비행기 등의 출발시간에는 늦지 않기 위하여 무진애를 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음이 흠뻑 젖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통을 여의고 해탈을 구하는데는 그야말로 태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마치 지금 마지막 열차가 떠나려 하는데 온갖 구경에만 정신이 팔린 채 열차가 곧 떠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여행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 라도현(재가 수행자)

VISUAL 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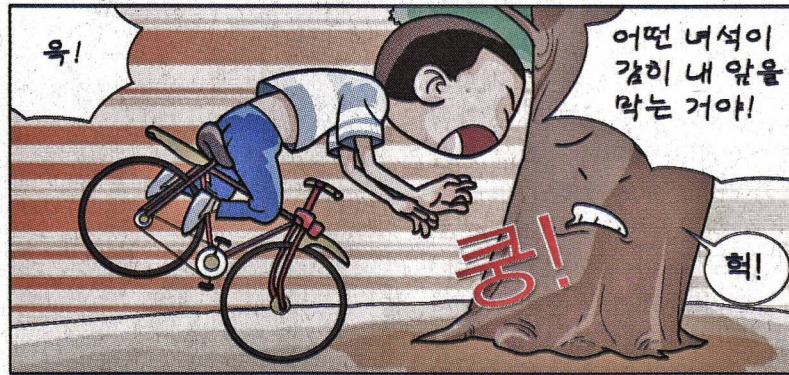


제1화: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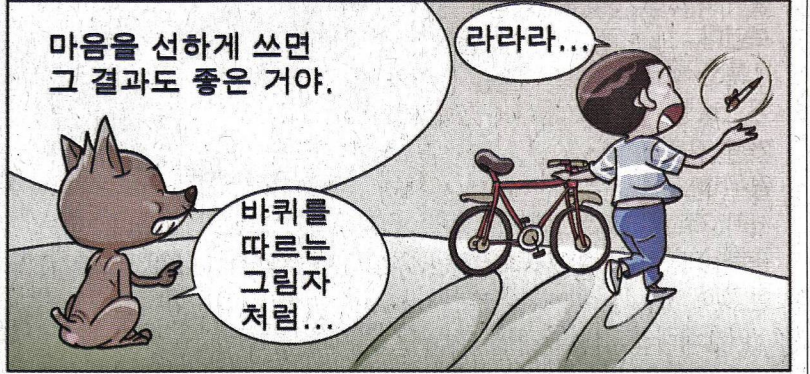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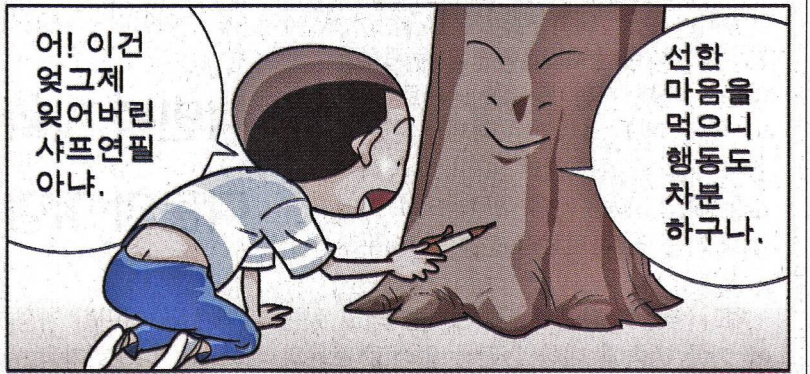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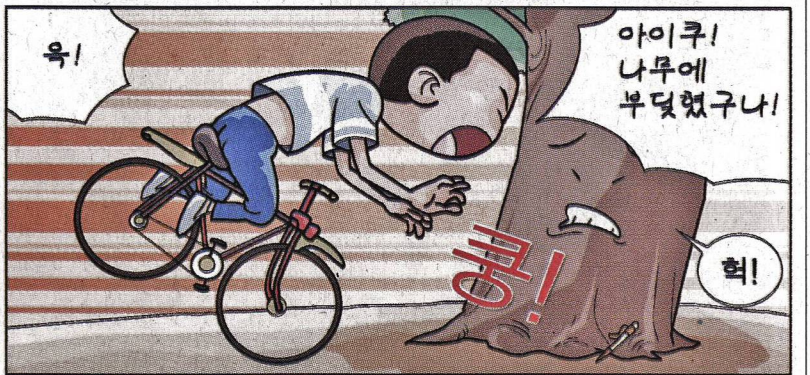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하라KR HTTP://DRAWING-RAHULAOPY.COM

부정적인 마음의 경우



긍정적인 마음의 경우



이달의 명상

마음은 인연따라 변한다



"마음이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인연에 따라 더러워 지기도 깨끗해 지기도 합니다. 한 순간에도 별별 것을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백련선서 간행회 산방아화 10 중에서



금삼인삼

동원시장점 가-42호 02. 499-9006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사장 길경임 (벽룡사교도) 010-9960-8778

인삼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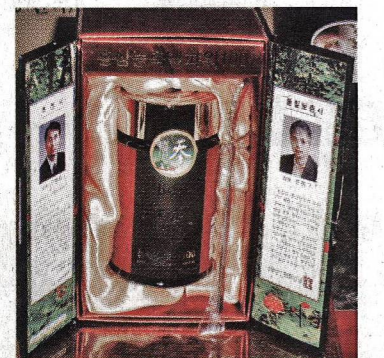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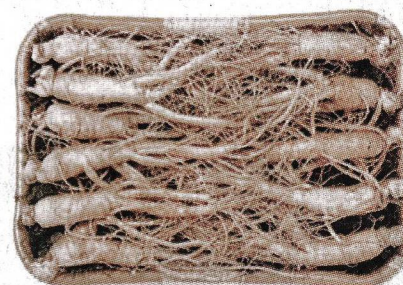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겐)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103-24 동원시장내 가-42호

민다리의 복지세상 10

다문화가정의 복지 다변화



1990년대에 우리 사회에서는 '농촌총각-연변처녀 짝짓기 사업'으로 대표되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면서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수는 2007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만 3천 여 명을 육박하고 있는 등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의식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어서 타 민족에 대한 인종주의적 배타성이 강하다. 민족이 다른 것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무관심은 다른 민족에 대한 멸시와 냉대로 나타나 국내 거주 외국인은 경제적 빈곤과 함께 심리적 위축감에 따라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현재에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포용과 배려로 그들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사회전반의 인식전환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가정 자재의 경우 학교에서의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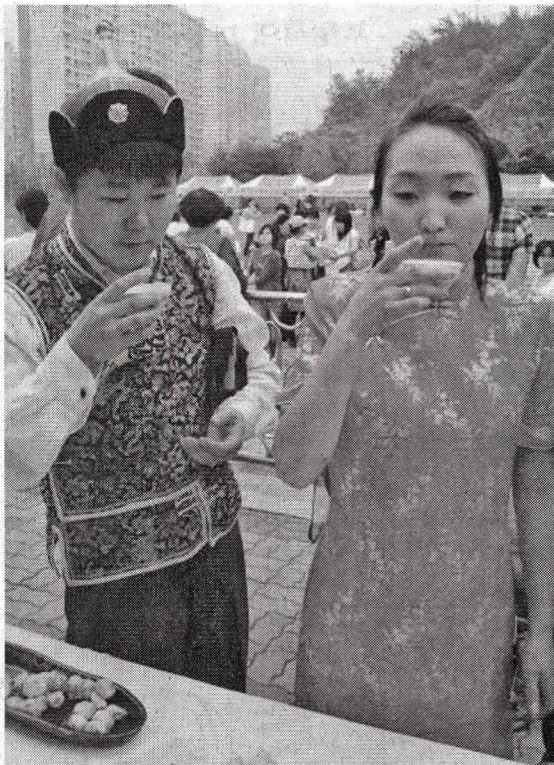
며, 좁은 의미에서는 이주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은 세계화의 변화나 이주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일어난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문화는 'Culture'로 서구에서는 문명(Civilization)이라는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문명(Civilization)은 정신적인 측면이 강한 용어로 사용되다가 이성, 발전을 지향하는 의미로 점차 변화되었다.

철학자 칸트는 '문화'는 '아민'에 반대되는 측면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고 독일의 엘 리아스는 '문화'를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성이나 국민성의 차이가 크다면 '문명'은 보편성을 중요한 의미로 삼았다. 그러므로 다문화란 한자의 '多'와 '文化'가 합쳐진 말로 개인이나 국민성이 다양하다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가정이라는 의미이며 국내에서의 다문화가정은 상당수가 여성결



1만 4526명이며 외국인자와 한국여자 혼인의 경우 일본과 중국이 각각 3684명, 248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전국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2만 4217명, 서울이 2만 2582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천, 경북, 충남, 전북, 전남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주는 852명으로 가장 적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 울산은 1천 794명으로 집계되었다. 다문화가정의 전국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2만 4217명, 서울이 2만 2582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천, 경북, 충남, 전북, 전남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주는 852명으로 가장 적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 울산은 1천 794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는 이제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국민의 편견과 물이해에 따른 차별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엄연히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다. 이들의 고통이 곧 우리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거시적 안목에 따른 구체화된 정책으로 국가의 문화적, 경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어려움을 우선 해결해주고 우리사회에서 잘 융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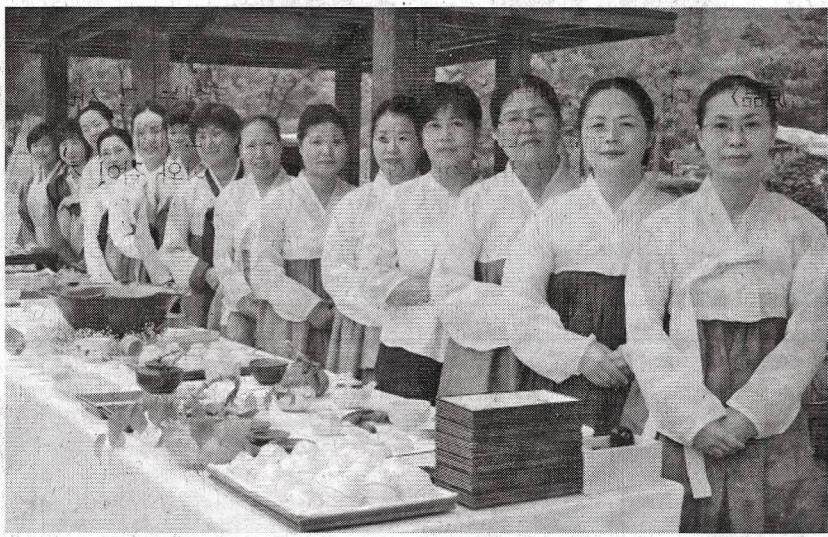
또한 우리 개개인은 다른 민족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민족 사회로 이양, 현실 자각해야
다문화 가정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혼 이민자 가정이다.

다문화가정 유형은 외국인 근로자 가정 : 한국인 + 외국인이주노동자, 외국인이주노동자 부부 => 결혼, 결혼이민 가정 : 외국인거주자부부=> 국내 이주

2007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자는 총 2만 9140여건으로 집계되었고 한국여자와 결혼한 외국남자의 경우 9천35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3년과 비교해서 각각 9926명과 2903명 증가했으며 총 1만 2829명 증가한 것이다. 2007년 기준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경우 중국이



총기동지보감

여름철피서지 건강관리법



조선화 원장
(여성美 한의원)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도 경기침체와 국내외의 크고작은일들로 어수선했다. 하지만 해마다 돌아오는 여름휴가철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피서지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즐거워야할 피서지에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병을 얻어 휴가기간을 망치게 되는경우도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평소 생리통이나 생리불순등 자궁건강이 좋지 않은 경

형성하며 간혹 통증도 나타날 수 있다. 찬물이나 얼음, 찬물수건을 이용해 피부를 마찰하거나 찜질해주고 오이나 감자등을 잘아 직접 환부에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미와 주근깨 : 평소 기미와 주근깨가 있었던 경우 특히 장시간의 노출을 피해야 하며 질환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연고나 화장품을 3-4시간 간격으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구르트나 밀가루팩을 이용하면 미백효과를 높일 수 있고 피부의 열을 식히는데 도움이 된다.

* 벌레나 곤충에의한 손상 : 여행중 특히 유행성 모기나 벌레에 물렸을 경우 가려움과 동시에 붉게 부어오르게 됩니다. 가급적 피부의 노출을 줄이며 향수나 진한화장, 헤어제품의 사용을 줄이는것이 예방책입니다. 물린뒤에는 얼음을 이용하거나 냉찜질이 도움이 되며 시원한 물로 씻어내는것도 세균의 감염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 음식으로 인한 알러지와 두드러기 : 대체로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특

자외선 노출로 피부 손상 빈발
휴식 위한 준비 노력 필요

우 지나친 냉방에 노출되거나 오랜시간 수영을 하고 차가운계곡물에서 물놀이를 하고 냉한 과일이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 차고냉한 환경에 노출됨으로 자궁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에 문제를 초래하여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심해지거나 자궁질환이 악화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과일이나 물은 실온에서 보관후, 복용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의 찬바람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휴가를 마치고 일상에서는 찜질이나 반신욕, 좌훈등으로 자궁골반혈액순환을 도와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여름피서지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일것이다.

그래서 여름철피서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질환과 대처법에 대해서 몇가지 소개한다.

* 햇볕에 의한 화상일 경우 :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어 피부가 붉어지면 서 시간이 지나 가려움과 물집등을

징이 있고 피부증상외에도 복통, 설사등의 소화기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섭취한 음식의 부패정도와 조리가 부적절한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익히거나 끓이지 않은 음식섭취후에 대부분 발병되며 원인이 제거되면 피부증상은 자연히 소실된다. 이때 구토와 설사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탈수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은 땀의 배설이 많고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탈수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과 피부노화등이 유발되거나 진행될 확률이 높다.

특히 피부의 경우 단순히 피부자체의 문제보다는 우리인체 오장육부의 거울이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과 영양의 섭취, 적당한 스트레소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건강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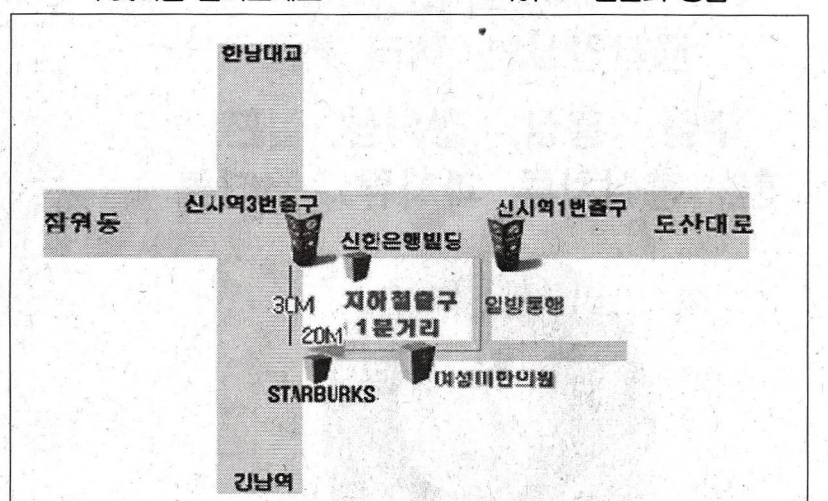
여름휴가철은 정신적, 육체적인 충전을 위한 중요한 시간인 만큼 건강한 휴가와 휴식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경단(子經丹)
중상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어혈케기

여성美 한의원

-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우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저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지상설법

십일(10/1) 희사법



법공

(기르스승)

십일 희사법은 수입의 십분의 일(10/1)을 은혜를 준 상대에게 되갚는 행위로 기독교와 불교 및 대다수의 종교에서 오래 전부터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종의 신앙적 헌금(獻金) 행위로 정착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고찰해 보면 중세 유럽 교회에서 널리 행해졌다 의무적(義務的) 헌금 제도였다고 하며,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는 기독교 구약 시대의 성서(창세기-14:20, 레위기 27:30-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십일조를 바침)에 기록이 있고(이런 기원으로 오늘날까지 교회의 헌금제도로 정착되어 있으며 이슬람 교회에서는 10/2(십분의 이)헌금을 율법으로 하고 있음) 이 성서의 율법을 근거로 4세기 경부터 당시의 군주가 이 제도를 시민 생활에까지 확대하여 일반 사회의 조세법으로 활용하여 10/1(조가 국민의 의무적 조세제도가 되었다고 한다. 동양에서도 '백자' 같은 분도 수입의 10/1

을 조세로 내는 것은 천하의 중정(中正-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올바른 일)이라고 했고 근세의 경제석학들도 10/1 법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조세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의미의 시사성(時事性)이 매우 크다 하셨습니다.

필자가 한 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어 절실히 느낀바입니다만 과수를 비롯 모든 농작물도 매년 일정한 수확과 땅 기운을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최소한 소출의 10/1 정도는 거름으로 되돌려 줘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攝理)임을 농사를 지어 본 사람

사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비율적으로 다수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의무적 율법이 아니므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10/1 희사의 미묘공덕(微妙功德)을 증득하여 환희심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란 천언(千言) 만담(萬談)의 이론보다 실천을 통한 자내증(自內證)으로 행자에게 법을 얻게 합니다.

참고로 총지종의 승직자는 10/2 희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조님께서 재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현 시대는 몰도시대라 하시고 과거 인도시대에는 물질보다 예의, 도덕, 인정이 우선 되었지만 현 시대는 물질과 도덕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물질시대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조님께서도 또 탐심 없애는 것이 큰 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희사하는 것이야말로 큰 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준 상대에게 되갚는 행위

미묘 공덕 증득해 보고 환희심으로 실천해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간생활을 비롯한 만물이 서로 주고 받는 인과(因果) 관계 속에서 필연적인 여수(與受)의 거래(去來)가 있게 마련이고 거래 여수가 있음에 일률적(一律的)으로 강제(強制)는 없으므로 보편타당한 표준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은 다 아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10/1 희사법이야말로 천지 대자연의 이치에도 부합되고 인사(人事)에 있어서도 서로 주고 받는 거래에 있어서도 매우 이상적인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총지종의 많은 교도들 중 이 10/1 희

◇ 예배와 찬탄

선재동자가 물었다. "어떻게 예배 공경하며 회향해야 할지?"

보현보살은 선재동자에게 말했다.

"부처님께 예배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十方) 삼세(三世) 모든 불국토의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께, 보현(普賢)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신심을 내어 눈앞에 보인 듯이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항상 예배 공경하는 일입니다. 허공계(虛空界)가 다해야 나의 예배 공경도 다할 것이나,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 공경도 다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야만 나의 예배 공경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세계와 업과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 공경도 다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계속하여 끊임없이 몸과 말과 생각에는 조금도 지지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또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의 모든 불국토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 계신 데마다 많은 보살들을 모시고 있는 것을 내가 깊은 지혜로 눈앞에 계신 듯이 알아 보아, 변재천녀(邊材天女)보다 뛰어난 변재로써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그치지 않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

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야만 나의 찬탄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공계와 중생의 세계와 업과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찬탄도 다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계속하여 끊임없이 몸과 말과 생각에는 조금도 지지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華嚴經 普賢行原品)

◇ 법공양

"여러 가지로 공양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불국토의 부처님들께 여러 가지 훌륭한 공양거리로 공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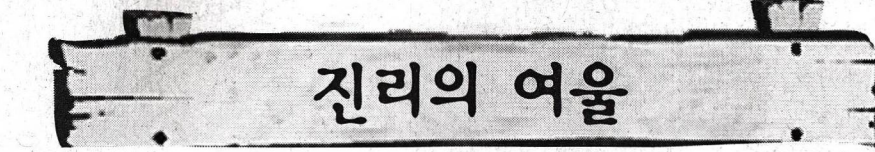
꽃과 천상의 음악과 천상의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뿌리는 향, 등 이와 같은 낱알 무더기가 수미산만합니다. 여러 가지로 켜는 등은 우유등, 기름 등, 향유등으로 심지는 수미산(須彌山)만하고 기름은 바닷물과 같은데 이러한 공양거리로 항상 공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法供養)이 으뜸입니다. 법공양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 공양,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착한 일 하는 공양,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菩提心)에서 떠나지 않는 공양 등이 있습니다.

앞에 말한 물질적인 공양의 공덕을 법공양에 견준다면 잠깐 동안 법공양한 공덕의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숫자와 비유로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며,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함이 부처님을 출현(出現)케 하는 일이고, 보살이 법공양을 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수행함이 진실하고 법다운 공양인 것입니다. 넓고 크고 가장 훌륭한 이 공양은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야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허공계와 중생의 세계와 업



진리의 여울

과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이 공양도 다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순간순간 계속하여 끊임없이 몸과 말과 생각에는 조금도 지지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華嚴經 普賢行原品)

◇ 참회

"업장(業障)을 참회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나간 세상 끝없는 세월에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탓으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악업이 한량없고 끝이 없을 것이다.

민약 그 나쁜 업에 어떤 형체가 없다면 가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다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몸과 말과 생각의 청정한 업으로 법계에 두

루한 많은 부처님과 보살들 앞에 지성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나쁜 업을 짓지 않으며 항상 청정한 계율의 모든 공덕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야만 나의 참회가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공계와 중생의 업과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끝내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계속하여 끊임없이 몸과 말과 생각에는 조금도

지지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華嚴經 普賢行原品)

◇ 수순 중생

"항상 중생의 뜻에 수순(隨順)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온 법계의 중생들은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 앞에서 나고 태나 습기에서 나고 혹은 자질로 나기도 하는데, 그들은 땅과 물과 바람과 의지해 살며, 허공을 의지해 살고 풀과 나무를 의지해 삽니다.

여러 가지 몸과 형상, 모양, 수명, 종족, 이력, 성질, 소견, 욕망, 뜻, 위의, 의복, 음식 등으로 살아갑니다. 밭 없는 것, 형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것들 모두에게 내가 수순하여 여러 가지로 섬기고 공양하

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스승과 같이 받들며 아라한이나 부처님과 다름없이 대합니다.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어 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며, 어둔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합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일체 중생을 평등하고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중생을 수순하는 것은 곧 부처님께 순종하여 공양하는 일이 되고, 중생들을 존중하여 섬기는 것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여 받드는 일이 되며,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바탕을 삼기 때문입니다.

중생으로 인해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으로 인해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해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넓은 모랫길에 서 있던 큰 나무의 뿌리가 수분을 받으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무성하듯이, 생사 공양의 보리수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이나 보살은 꽃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므로 보리는 중생에게 딸린 것입니다. 중생이 없다면 보살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중생에게는 마음을 평등히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중생을 수순함으로써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수순해야 합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수순은 다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계속하여 끊임없이 몸과 말과 생각에는 조금도 지지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華嚴經 普賢行原品)

◇ 같이 기뻐함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의 많은 부처님이 처음 발심(發心)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복덕을 부지런히 닦을 때에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고 무량겁(無量劫)을 지나면서 낱알 겁 동안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머리와 눈과 손발을 보시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 갖가지 보살의 행을 원만히 갖추었고, 온갖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 그 위없는 보리(菩提)를 성취했으며, 열반에 든 뒤에는 그 사리(舍利)를 나누어 공양했습니다.

이와 같이 착한 일을 나도 같이 기뻐하며, 시방세계의 온갖 중생들이 지은 팔팔만한 공덕일지라도 내 일처럼 기뻐하며, 성문(聲聞)과 독각(獨覺)과 배우는 이나 더 배울 것이 없는 이의 공덕도 내가 같이 기뻐하며, 보살이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 가장 높은 보리를 구하던 그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같이 기뻐합니다.

이렇게 해서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내가 같이 기뻐함은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계속하여 끊이지 않아도 몸과 말과 생각에도 조금도 지지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華嚴經 普賢行原品)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살기쉬운 밀교상식 <25> 밀교의 수행②
밀교의 가지(加持)

불교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초기불교니 부파불교니 대승불교니 하여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 남방불교니 북방불교니 하여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또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혹은 권교(權敎)와 실교(實敎) 등 내용적으로 불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자력교(自力敎)와 타력교(他力敎)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성불하느냐 아니냐를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고해에서 건지셨다고 서원을 하신 본원력(本願力;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서원)에 의지하여 성불하느냐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기의 정진노력에 의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을 자력교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성불하는 자력교는 도를 이루기가 무척 어렵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난행도(難行道)라고 한다. 거기에 반하여 오직 불보살의 명호

‘즉신성불(即身成佛)’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내가 곧 부처이다’ 혹은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자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의 힘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여래 혹은 법신불의 가지라는 것이 필요하다. 가지라는 것은 나의 수행력에 부처님의 본원력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밀교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의례(儀軌)와 행법(行法)도 결국은 진리를 인격화한 법신불의 가지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신불의 가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수많은 불·보살·명왕·천 등이 만다라의 형태를 띠고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로자나불의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불·보살·명왕·천 등은 물론 삼라만상이 다 비로자나불의 가지의 세계이지만, 우리 앞에 전

불교설화 <35>

반야심경 독송의 가피력

- 금오선사의 기도성취

만약 불자들이 가정에 한 가족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어느 병원에서 소생할수 없다는 의사의 판명이 나온다면 담당 불자님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때는 의지가 최대한 약해지는 시기 인지라 모두가 기독교인은 하나님에게 크리스찬은 성모마리아님에게 불자들은 각 사찰의 불보살님에게 그리고 설령 종교가 없던 사람 마저도 어느 한 종교에 매달릴 겁니다. “살려 주십시오”하고 말죠.

그 어떤 대상을 선택하여 기적의 의지를 갈구 하려는 것이 우리 중생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흔히들 불보살님들에게 무어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같은 가피를 입어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고, 평상심을 잃을 때 혹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기도를 할 겁니다. 다시말해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때는 기도 하려는 마음들이 없다가 본인이나 가족이 급한 경우에는 매달리려 한다는 것 입니다.”

기도 정진은 불교에서는 가장 신성한 종교의례 입니다. 기도의 가피는 불보살님의 법력을 얻자는 것인데 그런 급한 경우가 아닌 매일 매일 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써 내려 가려는 이야기도 평상시에 반야심경과 108 배를 게을리 하지 않던 어느 법우의 이야기 입니다.

<묘법연화경 보문품>에 “선남자야, 만약에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의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백천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그 가피력을 입는 법우의 이야기를 적어 봅니다.

1991년 6월 3일 오후 2시에 서울 잠수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김 준환이라는 학생이(당시 고대 3학년) 구입한지 5개월이 되는 현대 스퀘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북쪽으로 가던 중 잠수교 터널 안에서 옆의 차를 피하려다가 앞에 가던 유조차 뒷 부분에 부딪히고 튕겨져 나가 옆의 옹벽에 부딪치며 전복되어 차가 엎어진 채로 20여m를 데굴데굴 굴러 갔습니다. 유조차 운전자는 순간 큰 사고가 났음을 알고 정지 하였으며, 사고차는 유조차 앞으로 미끌어져 나갔습니다. 유조차 운전자가 내리려는 순간, 그는 기이한 광경을 보

게 됩니다. 다름이 아닌 전복된 사고차가 안보일 정도로 하얀 모습의 커다란 부처님 형상이 차를 덮고 있는데 아닙니까? 순간, 그 유조차 운전자는 섬뜩함을 느꼈으며, 잠시후 그 부처님 형상이 없어지자 그는 차에서 내려 사고가 난 차에 가보니 차는 폐차 직전으로 찌그러져 버렸고 이상하게도 사고차의 운전자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51세의 유조차 운전자는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이었고, 믿는 종교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이런 정도의 사고라면 운전자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니 운전자는 보이질 않고 옹벽 옆에서 한 학생이 책가방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조차 운전기사가 그 학생에게 다가 가 “학생 ! 혹시 저 차 운전하던 운전자가 못 보았는가?” 그러자 그 사고차를 운전하던 김 준환 학생이 “제가 저 차를 운전했는데요” 유조차 운전기사는 믿기지 못하여 다

“사고 순간 차가 부딪히는 것을 보며 누군가가 자기를 감싸 안는 느낌을 받고 보니 차가 거꾸로 있는데 옆 유리창이 보이므로 안전벨트를 풀고 책가방을 지자 누군가가 안에서 차에서 내려주었습니다”.....그랬습니다.

자 !, 한번 생각 해 봅시다. 자동차 유리창 부분은 작습니다. 그 부분을 빠져 나오려면 말쑥한 상태에서도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것 입니다. 당시 김준환 법우도 회상을 할 때 “저 창문으로 내가 어떻게 빠져 나왔는지 모르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러한 일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여기시죠? 이것이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력 입니다.

그 차는 결국 대파되어 폐차를 시키고 키가 181cm였던 김 준환 법우는 그런 대형사고를 당하고도 큰 상처나 없이 무사히 그 구멍으로 온 것 그것이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력 입니다. 그의 가정을 잠시 소개해 보면, 그

아들이 성품이 착하여 어머니 말씀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학교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고후 월명심 보살님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그의 집안은 늘 부유하고 걱정은 없었으며, 백련사에서 기도 할 때는 특별히 원을 세운 것은 없으나 기도 중에는 원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그저 좋은 인연이 맺어지기’를 바랐으며 사고 후 기도의 공덕을 부처님의 가피지표력을 확신하고 기도드린 정성보다 너무 큰 가피를 입었다고 하면서 더 정진을 했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와같이 기도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불자의 집안처럼 앞으로 닥쳐오는 불행을 불보살님의 가피지표력으로 미리 피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모든 열매는 열매가 맺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도 없이 나무한 그루락 심어 놓고 느닷없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망정만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 나무를 정성스레 가꾸며 결실을 기다리는 현명한 사람처럼 늘 쉬지 않고 기도정신 수행을 하시면 불보살님이 감응하시와 가피를 주실 겁니다.

즉,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은 어느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운데 계신 불보살님에게 가피를 청하는 기도를 타력이라고 하겠습니까? 기도로 마음을 허공처럼 깨끗이 비워 버리면, 바로 그 마음 속으로 부처님이 자리를 하시는 겁니다. 본래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으나 그 마음이 탐진치 삼독의 때가 끼어 불수가 없는 것이죠. 옹팡정진하는 수행 속에서 몸과 마음의 때를 벗기어 내는 청소를 하는 수단으로 통하여 각자의 마음이 청정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를 참고 견디는 ‘인욕바라미’이 없이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기도를 하면 한 번 기도를 시작하고 보면 늘 수많은 장애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 장애가 생길 때 반드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재가불자 여러분 그리고 법우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박하고 작은 것에서 부터 크고 위대한 온갖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발심하시어 우리들의 원을 실현키 위한 기도를 오늘 다시 정하여 험없는 옹팡정진을 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 실일화



삽화 : 정윤지

섯번이나 물어 보았었습니다. 정말 운전자라면 이렇게 살아 있을수가 없으며, 더구나 온 몸에 상처도 없이 서 있을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조차 기사는 그 학생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며 사고처리를 해 주고는 그 학생의 아버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김 준환 학생의 사고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의 아버지에게 유조차 기사가 혹시 종교가 있으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학생의 아버지는 종교는 불교 집안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 제사야 유조차 운전자는 자기가 본 형상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학생의 아버지에게 그 때 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난 뒤 유조차 기사가 김 준환 학생에게 다가가 그 사고 당시의 일이 궁금하여 물어 보니

법우는 2대 독자로 그의 어머니 김월명심 보살은 20년 전 부터 시부모님의 영정을 처음 백련사로 모실때 그 인연으로 불교와 인연이 되어 불교에 귀의를 했고 백련사에서 정진하며 전국 어느 사찰이든 우란분절 백중 기도 천도제가 있는 곳이면 빠짐없이 동참하며 하루도 정진을 게을리 않고 매주 토요일이면 철야정진을 하였었습니다. 그는 당시 (1995년 쯤으로 기억) 백련사 재무로 일했으며 사고가 나기 2년 전부터 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반야심경>을 독송 하라고 하면서 절을 최하 50번, 조금 더 하면 108배를 시켰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법당도 아니고 부처님도 안 계신데 어디에 절을 하냐”고 하자 김월명심 보살님은 “지금 내가 앉은 자리가 법당이니 그냥 열심히 해 바라”고 대답 했었다.

밀교는 이행도와 난행도의 결합

를 외움으로써 성불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력교이다. 이 수행법은 근기의 고향을 막론하고 누구든 실천하기가 쉬우므로 이행도(易行道)라고 한다.

그럼 밀교는 자력교일까? 타력교일까? 엄밀하게 말하면 밀교는 선(禪)과 같이 스스로 성불의 길을 찾아가는 자력교도 아니며, 정토 교처럼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의하여 그 원력으로써 정토에 태어나는 타력교도 아니다.

밀교는 수행자가 본존의 앞에서 본존의 이미지를 그리며 거기에 전념하면서 법신불의 가지(加持)로 진리의 당체인 법신불을 나의 안에 끌어 들여오고, 동시에, 내가 법신불의 품안에 안김으로써 나의 자성과 법신불의 진리 세계를 합일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입아아입(入我我入)’이라고 하며 법신불의 진리 세계와 내가 일체가 되었을 때를

개되고 있는 이러한 가지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이것은 마치 방송국에서 전파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고 우리가 라디오라는 수신기를 가지고 있어도, 싸이클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방송 청취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은 끊임 없이 우리에게 법문을 내려 보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교는 자력교도 타력교도 아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자력과 타력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의 정진력에 법신불의 가지 공덕을 더하여 수행을 함으로써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빨리 성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밀교 수행법의 특색이다.

회령(교육원장/철학박사)

어르신들 부모님처럼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어르신에게는 평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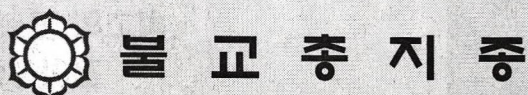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노인은 소액의 본인부담금(총비용의 15~20%)으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보장제도입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정방문 요양서비스)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 문의 : 02)3452-7485(016-651-805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수행의 길에서

이른 새벽에

자 인 행 부산 정각사

이른 새벽의 기운을 마음껏 들이켜 본다.

날이 밝아오기에는 아직 이른 새벽 시간이다. 지난 삶에 비추어 보아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건 드문 일이었지 싶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의 서원담이 언제부터인가 나만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참 모습이 있어서 그것도 한가닥 행복이다.

한 알 한 알 엮주알 부딪히는 소리가 아득히 들리고 쉽게 자리잡지 못하는 번뇌 망상들이 내 간절한 서원들을 더디게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에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비를 맞고 서있는 가로수. 짙은 녹음과 그 향기에 취해 있는 길 사이로 긴 터널같은 길을 걸다 문득 내 지나온 길을 되돌아 본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차라리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람, 또는 그 만남에 마음 절절이 눈물 묻어내는 고마운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운명처럼 내 곁을 스쳐 지나가듯 내가 저 길을 걷는다. 지나온 길 위에서 내 식대로 저울질하며 내 맘대로 생각하고, 만나고, 보내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싶다.

그들의 기억속에 나는 어떤 색깔로 자리잡고 있는지 그리운 사람인지 아픈만 주는 사람이었는지.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 그들에게 아픈일 수가 있고 내 시련과 아픔이 그들에게 안식처일수 있듯 인연은 그런건가 보다.

어디로든 기분전환 삼아 가슴속에 신선한 공기 쐬면서 자연을 벗 삼아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살고 싶다

지만 웬만한 사람은 그리 쉽지 않은 일 아닌가?

물질과 마음의 여유가 허락 된다면 일상의 고달픔과 쫓김을 뒤로 한 채 어디론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금 지난 생들을 뒤돌아 보겠지만 현실에 매인 몸이라 쉽지가 않다. 전생에 간직했던 기억과 지식과 경험은 물어 버리고 다시 이생에서 배워 자기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자기만의 천명이 있을 터인데...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정각사와의 인연을 뒤로 한 채 우리 곁을 떠난 정 교무님 10년의 세월을 훌쩍 넘기고 다시 정각사로 되돌아 오신 박보살님 그래서 인연되어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 인연이 비 내리는 이 거리를 아름답고 슬프게 한다.

진리는 하나이고 인생의 길도 하나인데 나는 왜 보고도 알지 못하고 알

고도 보지 못하는 건지. 살아가는 일에 그 인연의 만남과 헤어짐에 답을 알면서도 내 손으로 눈 가리고,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집으로, 고집으로 그것을 끝내 자존심이라 착각하며 번뇌하며 시간을 보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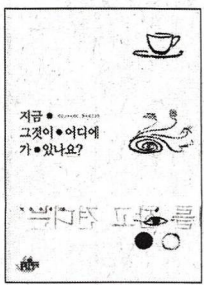
눈물 짓고 웃음 짓고 살아가는 일은 어쩌면 탕빈 허공에 기러기 날아가듯 지나면 흔적도 없는 바람인데 그 바람앞에 있는 인간의 삶을 알고 나 있는 이들은 얼마나 될런지.

천년도 아니 백년도 채 못사는 인생을 하루 한달 일년을 그 인연에 울고 웃고 산다. 잡지도 말고 머무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돌고 돌아가는 팽이처럼 그렇게 바람처럼 구름처럼 강물처럼 흘러 보낸다. 비 잦은 거리의 가로수가 젖은 채로 아름답다. 내 삶처럼 그대들의 삶처럼...

이달의 추천도서

지금 그것이 어디에 가있나요

박은구 지음/ 불광 출판사



명상이란 단어, 수행이란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명상에 들 수 있도록 구성된 심리치유·명상 에세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또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은 꿈을 이루지 못한다. 왜 그럴까?

참선과 요가를 벗삼고 가족과 함께 지금자족적인 산골생활을 해온 저자는 '진리란 복잡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진화된 21세기는 깨달음도 쉽고 간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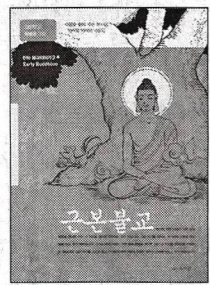
그리고 삶에서 느낀 깨달음을 바탕으로, 복잡한 세상에서 고유의 힘을 가진 한 생명체로서 풍요롭게 살아가

기 위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명상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았던 내밀한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 자신 안에 갇힌 지고의 힘을 신뢰할 때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들을 끌어오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에 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때, 마음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힘, 꿈을 이루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근본 불교 [만화 불교 이야기3]

김정빈 지음/ 솔바람



'만화 불교이야기' 시리즈 세 번째 책으로, 자비, 지혜 등 불교의 뿌리가 되는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다. 불교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궁금하게 여기지만, 그 깊고 오묘한 가르침을 제대로 깨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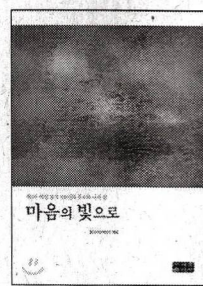
쉽다. 간혹 불교에 대해 말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해도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부분으로 전체를 의미짓거나 선입견이라는 굴절된 시각으로 불교를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그대로의 불교, 지극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기까지 한 불교를 만화라는 특수한 형식을 빌려 소개한다.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만화의 특성상 불교의 심원한 뜻을 지나치게 희화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빛으로

불교 여성 개발원 지음/ 조계종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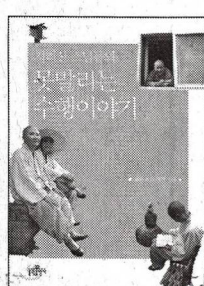
불교여성개발원이 선정한 108인의 여성 불자들이 전하는 불교와 삶에 관한 이야기.

『불교와 나의 삶』, 『불교와 나의 삶 - 두 번째 이야기』에 이어 세 번째로 출간된 이 책은 사회 각 분야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우바이들의 이야기를 수필 형식으로 담고 있다. 저자들은 부처님께서 걸으신 전법의 길을 지금 각자의 위치

에서 되돌아보고 깨달은 바를 소탈하게 적어 나누고자, 일상생활에서 느낀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전한다.

지리산 스님들의 못따리는 수행 이야기

천진 지음/ 불광 출판사



지리산 화개골 맥천 마을, 버려진 한 문짝과 한 나무들로 만든 한 평 남짓 토굴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의 수행이야기. 천진 스님이 2006년부터

운영해온 블로그 '보리심의 재작'에 올린 글 중 일부를 엄선하여 담았다. '보리심의 재작'은 스님 두 분이 지리산 토굴에서 수행하며 견져 올린 소박한 일상과 은사하신 정봉 스님께 들었던 소중한 법문들을 대조과 나누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 책은 솔직담백하게 일상을 써내려간 스님의 글은 물론이고 스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긴 사진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하였으며, '1장 한 평짜리 방의 행복'에서는 한 평 토굴에서 중만한 행복을 일구며, 그 행복을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애쓰는 수행자들의 청빈한 삶, 감동적인 일상을 담았다.

우리들의 이야기

인육 바라밀

노여워하지 않는 것이 인육(인내)이요,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인육이요, 다투지 않는 것이 인육이요, 살생하지 않는 것이 인육이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인육이요, 남을 지켜주는 것이 인육이요, 탐욕을 제거하는 것이 인육이요, 온갖 세속의 괴로움을 떨리는 것이 인육이다.

생활상식

거칠어진 팔꿈치 관리

계란 흰자를 거품 내어서 팔꿈치 등 거칠어진 부위에 바르면 피부가 놀라울 정도로 촉촉해 진다. 팔과 다리뿐 아니라 얼굴에도 시도해 보시다.

영수증으로 손톱과 발톱을 다듬어

슈퍼 마켓에서 받아온 감열 영수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요철이 있어 손톱 줄갈 대신 사용하기 좋다. 가볍게 문지르면 마치 투명 매니큐어를 바른 것처럼 손톱에서 윤이 난다.

소금 마사지로 다리의 부기를 해

소금 후 몸이 따뜻해졌을 때 굵은 소금으로 다리 전체를 마사지한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끌어 올리듯이 마사지를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져 부기가 빠지고 피부도 매끄러워진다.

금이 간 파운데이션 사용

파우더 파운데이션에 금이 갔을 때 부셔서 지저분해지기 전에 화장수를 발라 해결한다. 깨진 부분에 화장수를 조심스럽게 발라 주지만 하면 원

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커피 찌꺼기 비누로 모공 청소

고형 비누의 표면에 커피 찌꺼기(커피 콩을 간 것)를 손으로 바른 다음 거품을 내서 세안하면 커피 찌꺼기의 스크럽 효과로 모공의 노폐물이 제거되어 피부가 보들보들해 진다. 미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작아진 비누는 아재 망에 넣어서

크기가 작아진 비누를 곱은 아재 망에 넣고 고무줄로 묶으면 거품이 잘 일어난다. 거품이 잘 일면 피부에 부드럽고 남아 있는 피지와 땀을 흡수하는 세정력이 향상 된다.

변색된 은제 액세서리는 우유로

세정 지속적인 손질이 필요한 액세서리류, 특히 은 소재의 액세서리가 검게 변색이 되었을 때 우유에 약 10분간 담갔다 꺼내서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면 제품 특유의 중후한 광택이 되살아난다.

새 구두의 뒤꿈치는 비누로

가죽이 딱딱하여 발 뒤꿈치가 쓸릴 우려가 있는 새 구두를 신기 전에는 뒤꿈치가 닿는 부분에 고풍 비누를 칠해 두면 편하게 신을 수 있다.

불교 4대 성지

불교상식⑤

요즘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하면서 가슴속의 진리를 더욱 키워노라고 하시더군요. 인도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4대 성지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순으로 알아보죠. 먼저 태어나신 곳, '룸비니'입니다. 지금은 네팔 땅에 있습니다. 다음,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곳

'부다가야'입니다. 세번째는 처음으로 설법하신 곳, '사르나트' 초전법륜지라고도 하죠.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신 곳, '쿠시나가라'입니다. 불교의 4대 성지, 룸비니, 부다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라, 불자라면 일생에 꼭 한 번 순례하고픈 곳 아닐까요?

-윤우재 기자

고창 최고의 복분자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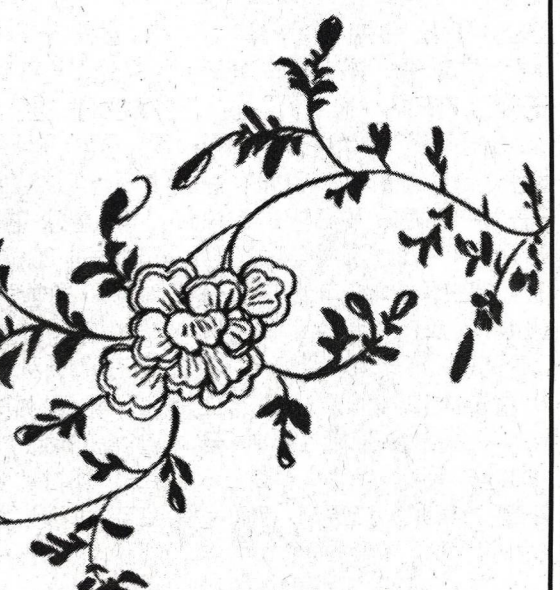
'온 가족이 직접 재배부터 제조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 효능 · 효과 -

- *치매 중풍 예방 및 치료
- *항산화 효과-산화질소 생성 억제로 노화예방 (비타민C보다 5.2배 이상 효과)
- *관절염 치료 예방과 오줌소태, 방광계통 치료
- *위장 질병 치료예방(위궤양, 십이지장)
- *장내 유해세균 억제
- *항암효과(미숙과에서 특효를 보임)
- *탈모방지, 발모촉진
-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및 정력강화

* 가격: 복분자 엑기스 ₩40,000 복분자주 ₩25,000 * 2명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주문전화: 063-564-4230 018-603-4230



7.2 전국 본말사 주지결의대회 통도사에서 열려

“경내지, 사찰림 공원구역 해제하고 문화유산지역 지정 요구”



◇통도사에서 스님들이 7.2 결의사항을 성토했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사찰경내지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을 해제하고 문화유산지역 지정’을 주제로 ‘7.2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0여 년간 이어져 온 자연공원법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 스님 1,500여 명과 신도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의 대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원정책을 비판하고 사찰 경내지를 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성토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원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사찰을 수행과 문화유산의 공간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에서 “사찰은 스님들의 수행도량이고, 불자들의 수행공간”이라면서 “(자연공원법이 사찰경내지를 공원에 포함시켜) 사찰을 일반공간 같이 여기고 배타하는 사람마저 있어 매우 곤욕스러운데, 자연공원법·전통사찰보존법 등 이중 삼중으로 묶인 국가 규제들로 인해 사찰이 본래 목적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애로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원장 원학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대회사에서 “1967년 군사독재정권 당시 건설부가 공원법을 제정해 불교의 수

행도량인 천년고찰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당국은 방대한 사찰 소유 토지를 40여 년 동안이나 공원으로 묶어두고 임의로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협의와 보상 절차도 밟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를 해왔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불교계의 요구는 자유민주주의와 다종교 사회가 마땅히 존중해야 할 사유재산권 보호와 종교의 자유권 수호 문제”라며 “환경부가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를 수용한다면 불교도들은 문화유산 보존과 자연환경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국립공원제도와 관련해 조계종과 정부가 끊임없이 반복된 원인은 1967년 처음 공원법이 생기면서 화엄사 등이 공원에 포함되면서 생긴 갈등으로 지금도 진행중이며, 실제 현재까지 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된 사찰 토지는 전국적으로 약 1억 평, 도립·군립·도시공원까지 합할 경우 2억 평에 가깝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스님은 7월 2일 결의 대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이

결의문

- 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에서 해제를 요구하며 - 전국에 수많은 명산, 영산(靈山)들이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으로 지정, 이용하는 과정에서 역사성, 문화성, 종교성, 신령성 등 정신문화적 가치가 배제되고 단순한 자연생태환경으로만 치부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본·말사 주지스님들은 불교의 정법을 수호하고 전법교화의 장인 사찰의 경내지를 비법적인 국가제도로부터 자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결의사항

첫째 :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해제하라.

둘째 :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국유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문화유산지역과 종교 활동지역이 아닌 순수 자연·생태지역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라.

셋째 : 산림형 국립공원은 산림관리의 주무관청인 산림청에서 해상형 국립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전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

넷째 :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사찰을 5중, 6중으로 중복규제하고 있는 국가법령을 즉각 개선하라.

다섯째 :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개념과 내용을 확대하여 ‘문화유산법(가칭)’으로 수정하고, 문화재의 종류를 시대적 필요에 따라 현재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자료, 전통사찰경내지 보존지역 등을 포괄하는 ‘문화유산지역(가칭)’을 신설하라.

불기2553(2009)년 7월 2일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 본·말사 주지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10년마다 있고, 올해가 개정을 맞는 해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라며 “이번 결의 대회를 통해 종단의 내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결의대회에서 발표된 실천방안은 △전국 본말사에 플래카드 등 홍보물 게시 △시민단체, 국회 등과 공청회·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전개 △스님 및 신도교육을 통한 홍보 △사찰 토지 위치와 면적을 적시한 사역도를 사찰 입구에 게시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계속 무성의로 일관할 때는 산문폐쇄와 같은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공양이 끝난 뒤 참석 대중 전체는 통도사 경내를 행진하며 종단의 염원을 공표하는 장관을 연출하였다.

다음은 7.2 전국 본말사 주지결의대회에서 발표된 결의문 전 문이다.

6.25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했다?

종평위 “군마저 선교의 장인가” 비판... 교육관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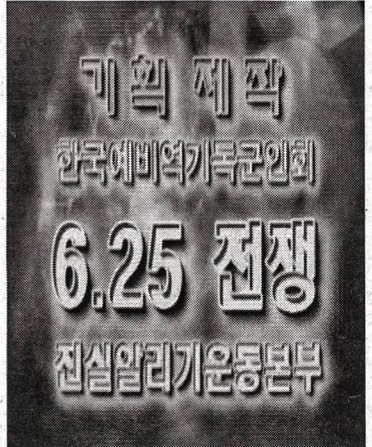
육군 71사단, 예비군 훈련 중 기독교 찬양 일색 영상에비역기독교인회 제작 동영상 안보교육 시간에 상영종평위 “군마저 선교의 장인가” 비판... 교육관 “몰랐다”

“6.25전쟁 발발 시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미국을 들어주셨으며 UN을 통하여 이 전쟁을 주관하셨다고 믿습니다.”

한 군부대가 예비군 동원훈련 안보교육 시간에 기독교 편향 일색인 영상을 상영해 특정종교 편향적 교육이라는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 담당 연대장이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을 검토했음에도 사색나 정정 없이 그대로 상영하고도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육군 71사단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예비군 동원훈련 중 안보교육시간에 기독교 찬양 일색인 동영상(http://www.mgoon.com/view.htm?id=1558184)을 상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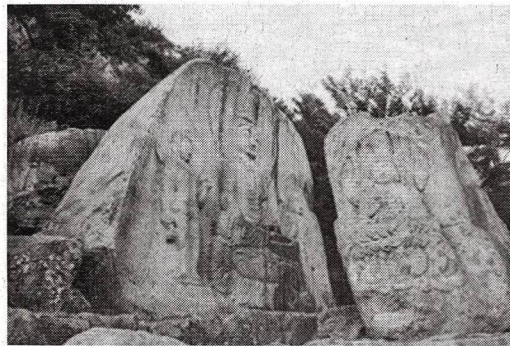
이날 상영된 동영상은 한국예비기독교인회 6.25 전쟁 진실 알리기운동본부가 20분 14초 분량으로 제작,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는 성경



이사가 53장 2절 구절이 제일 먼저 화면에 뜬다. 동영상에 시청하는 예비군들에게 마치 한국전쟁이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거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멘트로 빼뺀어진 역사의식마저 심어주고 있다. “전쟁 발발 시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미국을 들어주셨으며 유엔을 통해 이 전쟁을 주관하셨다고 믿는다. 지난 전쟁을 회상하며 결정적인 순간순간들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새삼 느낀다(16분 54초)”라는 신앙고백적인 멘트가 동영상 말미인 16분 54초에 상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8분 20초에

기독교의 부흥회 영상이 스텝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는 없다”며 “혹 우리 6.25세대들에게는 통일의 요단강 도하를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과 용기를 갖고 이 세대를 이겨 나가자”라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예비군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문제는 교육을 담당했던 장교가 동영상을 검토했음에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대로 예비군들에게 상영했다는 점이다. 동원 훈련 당시 안보교육을 주관했던 해당부대 연대장은 “6.25 전쟁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동영상 자료를 찾던 중 인터넷을 통해 해당 동영상을 찾았다”며 “실무자들과 영상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않아 동영상을 상영했다. 종교 관련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늘어놓았다. 이와 관련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국방부에 관련 책임자 문책과 동원훈련 기간 중 안보교육에 사용되는 각종 교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 등 3건 국보 승격예정



보물 200호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사진) 보물 13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보물 1366호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가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강진)은 6월25일 “3건의 불교문화재에 대해 명칭을 변경하고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은 남산의 대표적인 마애불상군으로 모두 일곱 구(龕)로 조성됐다. 함마축지인을 하고 있는 본존불과 양 옆의 협시보살이 높은 부조로 표현했으며, 앞쪽 사면 석주의 각 면에도 불좌상을 새겼다.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는 극락보존 후불벽면에 조성된 불화로 성종 7년(1476)이라는 제작시기와 조성주체, 그리고 조성한 작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데에서 조선 초기 불화 연구에 있어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는 《화엄경》의 내용 가운데 부처님께서 정각을 얻은 후 일곱 장소에서 아홉 번 설법했다는 칠처구회(七處九會) 장면을 형상화한 것이다. 국내에 알려진 채색 화엄경변상도 중에서 연대가 가장 앞선다.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자료집 발표회 가져

지난 6월30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스님)주최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후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적 자료집 개발 발표회를 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가졌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이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WHO 세계 보고통계에도 193개국 중 최하위국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낙태건수가 출생아기의 3배를 넘고 있으며, ‘저 출산율 세계 1위’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아기 수출국 5위’를 기록하는 ‘모순된’ 현상을 빚기도 한다. 입양되는 아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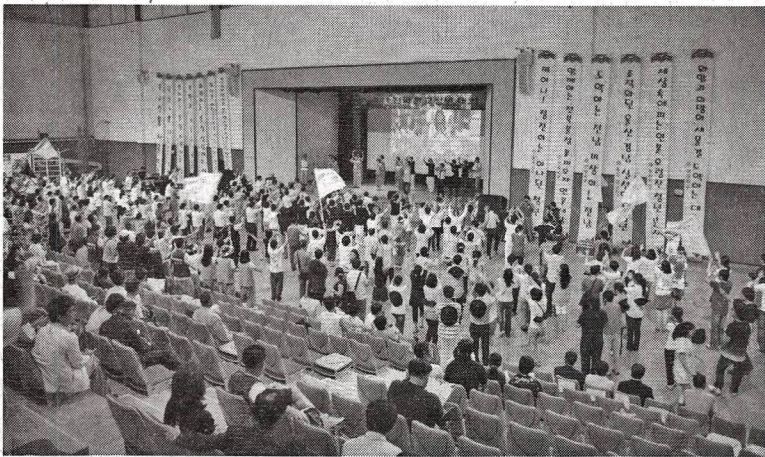
90% 이상이 미혼모의 아기들이다.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또 다시 인종차별을 겪는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해당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9일에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킨바 있다. 저출산 관련하여 조계종은 2006년과 2007년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불교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학술포럼과 전국 22개 주요사찰에서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오늘 개발 발표회를 가지게 된 법적 자료집 “아기의 탄생, 세상을 희망으로 바꾸다”는 총 3,000부를 발행하여 전국 사찰 및 교계 기관

과 단체에 배포함으로써 범회시, 신도교육시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이영호(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의 가족은 국가의 재산, 아기는 사회의 희망이라는 주제와 오지언(동국대) 강사는 불교의 출산관을 발표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태를 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용권(불교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저출산 사회의 미래와 법적자료집을 개발 의의를 발표했다. 이날 논평에는 김일명(동국대학원 사회학과) 교수가 해주었다.

	<p>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순길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p> <p>밀교사상사개론</p> <p>국판 / 책가 15,000원 / 불교총서중종출판부</p>
	<p>불설대승장엄보왕경</p> <p>연경국판 / 책가 7,000원 / 불교총서중종출판부</p>
	<p>불교, 교양으로 읽다</p> <p>국판 / 책가 15,000원 / 민족사</p>
	<p>어떻게 성불할 것인가</p> <p>국판 / 책가 8,000원 / 운주사</p>

교계소식 대한불교청년회, 제28차 전국불교청년대회 개최

6월 27일 경주 위덕대, 28일 포항 문화예술회관



위덕대에서 불청인들이 화합의 장에서 울동을 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는 창립 89주년기념 제28차 전국 불교청년대회를 경북지구(회장 최훈기) 주관으로 지난 6월 27일-28일에 걸쳐 "도전하는 불청인, 변화하는 불청"이라는 주제 아래 경주 위덕대 및 포항 문화 예술회관에서 전국 13개 지구 1000여명의 회원과 가족이 참석하여 열렸다.

이번 전국불교 청년대회는 경북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어 경북불교의 활성화와 화합을 이루고, 전국대회를 통하여 회원각자의 역할을 갖추고 대동의 한자리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한다는 목적이 있다. 전야제

인 27일에는 경주 위덕대에서 어린이참여 템플스테이와 초청공연, 각 지구별 공연과 울동발표가 있었다. 특히 광주지구의 빛 울림 사물놀이와 부산지구와 조계사청년회의 단체울동이 있었다. 대동한마당에는 법륜스님의 사회로 각 회원들의 한바탕 재미있는 놀이로 이어졌다. 본대회인 28일은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법륜스님의 강연에 이은 정웅정 대불청 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중앙,지구,지구,지구가 모두 하나로 뭉쳐 불교중흥, 민주주의수호, 평화통일의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자"고 역설했다.



포항 문화 예술회관에서의 본대회 모습

대불청 부총재이며 조계종 포교원장 혜충스님은 포교부장 계성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행동하는 청년, 참여하는 불청만이 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 김관용 경북도지사(이상걸 행정부시장 대독), 박승호 포항시장 등이 축사에서 불청대회개최를 축하를 해주었다.

이날 불청대상은 이승동 법무(광주지구 원각사청년회 감사), 최우수지구상은 울산,경남지구, 최우수지구상은 부산 대각사청년회, 그리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상은 대우불청

회장을 역임한 김선배법우, 자랑스런 불청선배상은 선진규 정도 원 원장이 수상하는등 대불청 활동에 기여한 각 지회와 법우들이 수상하였다. 한편 내년도 제29차 불청대회는 서울 조계사청년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한다. *대불청:1920년 6월 만해 한용운 스님을 위시로 청년, 스님이 중심이 되어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 조선의 독립'을 기치로 하여 '조선불교청년회'를 창립하여 민족각성과 독립운동을 해왔다. 광복 이후에는 조직을 재정립하여 60년대 '대한불교청년회'로 불교신행단체로 등록 활동하고 있다.

재가불자 1만명 시국선언

원불교 교무 200인도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환경연대 등 19개 사찰·불교단체들은 6월 25일 연석회의를 열고 '현 시국을 염려하는 재가불자 1만인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6월 10일 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가 주축된 108인 시국선언과 6월 15일 조계종 스님 1447인의 시국선언에 이은 세번째다.

시국선언문은 노무현 대통령 49재에 앞서 오는 7월 7일 조계사 추모문화제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서명은 7월 5일까지 각 단체를 통해 받는다.

한편, 원불교 교무 200여명은 6월22일 오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부를 향한 시국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공권력 남용을 자제하고 표현·집회·시위·결사·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민주주의를 확립해야한다"며 사회정치적 약자를 위한 상생의 정책을 펴고 자살 참사를 조속히 해결하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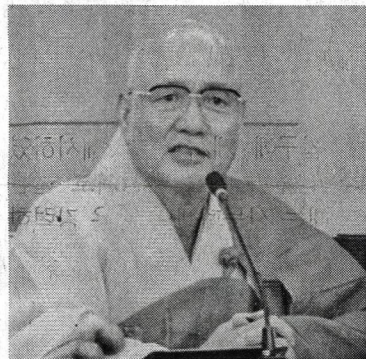
원불교 교무들이 대한문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재가불자 1만인 선언 취지문

현시국을 염려하는 재가불자 1만인 선언 민주주의의 후퇴, 민생경제 파탄, 남북관계 경색, 한반도 대운하제추진, 자연 공익법 개정, 케이불가 등 난개발 및 국토파괴, 종교차별 및 종교간 갈등 조장, 양극화 심화, 대량해고와 실직 등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잇따르고 있는 각 계층의 시국선언은 이러한 민의를 상징한다 하였습니다. 6.15일 '조계종 승려 1447인 선언'을 비롯한 각종 시국선언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독주와 독선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MB정부의 국정기조를 쇠신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범국민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국은 점점 난란의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기조 쇠신을 촉구하는 불교계의 뜻을 모아, '현 시국을 염려하는 재가불자 1만인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련스님 동국대 이사장 선출

상임이사 성관스님 선임



정련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에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련스님이 선출됐다. 동국대 이사회는 지난 6월30일 오전 제245차 회의 열고 새 이사장에 정련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상임이사에는 수원사 주지 성관스님을 역시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신임 이사장 정련스님은 "부족한 소남을 선출해 주 감사하면 서도 100년이 넘는 학교 역사에

서 얼마나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학교발전은 이사회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이사들의 말씀을 잘 수렴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임이사 성관스님은 "이사장 스님을 잘 보필해 학교발전을 위해 성심껏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련스님의 이사장 임기는 7월1일부터 시작된다.

주점·송전탑·케이블카에 전통사찰 '몸살'

관할청 방치 틈타 노점상 등 불법영업 성행

조계종은 지난 6월 19일부터 4일간 자연공원 지역에 위치한 사찰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도립·군립공원에 위치한 전국 20여개 사찰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공원에 위치한 일부 전통사찰의 경우 진입로에 단란주점이 들어서 버섯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찰은 무분별하게 들어선 송전탑과 케이블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할청의 감독 소홀을 틈타 사찰 입구에서 음식점과 노점상들의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서울 진관사의 경우 사찰 진입로부터 수십 개의 음식점들이 들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행락객들

의 소음과 음식물 쓰레기로 주변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또 가야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해인사의 경우 집단시설 내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가 즐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에 위치한 화엄사의 경우 사찰의 역사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교육을 공원관리공단에서 임의로 진행하면서 역사적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찰 본래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사찰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법, 전사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된 관계법령으로 인해 자칫 조그만 나무하나를 벌목하기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속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법주사는 산물 예방과 조경을 위해 산림청에 간벌 작업을 신청했지만 불허돼 사찰 주변의 산림이 잡목들로 우거져 화재 발생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진관사도 최근 사찰 주변에 우거진 흉수를 관리하기 위해 간벌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산림청이 이를 외면해 오히려 일부 흉수가 죽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이번 표본조사결과에서 보듯 공원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대부분이 문화유산 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한 환경부가 주도하는 자연공원정책에 묶이면서 문화유산 보존은 고사하고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조, 김혜옥씨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

불교신자인 코미디언 김병조, 탤런트 김혜옥씨가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스님) 홍보대사로 18일 위촉됐다고 생명나눔실천본부가 19일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시신 및 장기, 조직 기증 희망자와 수혜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기관으로 1994년 설립돼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위촉식

홍보대사: 탤런트 김혜옥·코미디언 김병조
날짜: 2009년 6월 18일 장소: 생교방송 법당 다보연



청담대리점 대표 이원숙

서울 보증보험 강남지점(강남역2번출구) 02) 3420-2020 fax 3420-2021
010-7470-1992 cda0809@hanmail.net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이만구

010 - 9921 - 9990
02) 739-2900

tot20009@hanmail.net
www.metlif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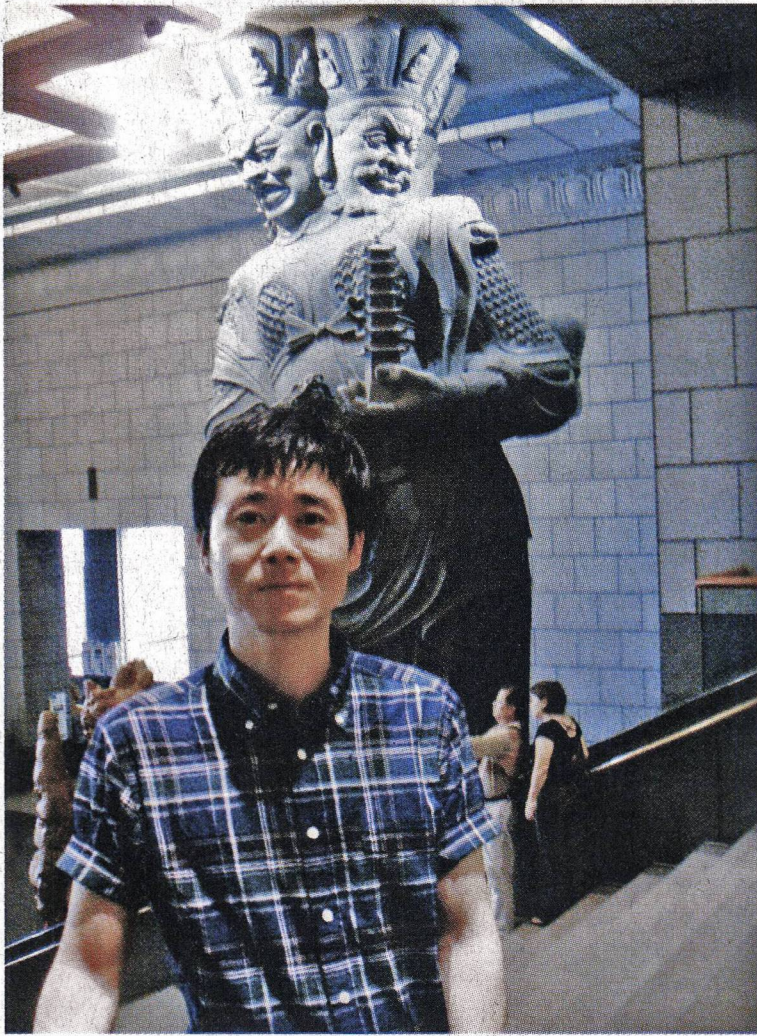
MAGIC 지점 FSR / MDRT / AFPK

서울대은퇴설계전문가과정수료
우수인증설계사 / 부동산학석사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 기고 / 대만불교를 찾아서

“대만불교 성공 저변엔 인재양성, 신도관리”



▲ 필자가 중대선사 사천왕상 앞에서.



▲ 불광산 개산기념비 앞에서.

먼저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 체험을 통해서 불교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대만불교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다양한 방향적 이해를 가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통리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체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총지종을 비롯하여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관음종 등 각 종단 실무자 25인이 참석하였

으며, 총지종에서는 황의수 과장과 장동욱 교수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일정은 대만의 4대사찰인 불광산사, 자제공덕회, 중대선사, 법고산사 순례를 비롯하여 까오슝, 태로각협곡, 국립야후해양공원, 타이페이 방문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2박3일 동안 불광산사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서 대만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만큼 삶의 방식과 생각의 폭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이해의 차이는 달라지게 됩니다. 10%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성공도는 10%밖에 되지 않으며, 50%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50%의 성공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체험을 위해 대만을 방문하여 불광산사, 자제공덕회, 중대선사, 법고산사 등 대만 4대사찰을 순례하면서 느꼈던 점은 외형적으로 사원 건축 양식이 한국 전통사찰처럼 목조양식이 아니라 총지종 사원건축 양식처럼 현대적인 건축양식을 하고 있으나, 사원 내부적으로는 전통사찰 못지않게 정교하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어 전통적인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이 잘 융합되어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교육으로 모든 사원에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었으며, 승직자는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직자들이 자신의 소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소임이 포교활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체험을 위해 대만을 방문하여 불광산사, 자제공덕회, 중대선사, 법고산사 등 대만 4대사찰을 순례하면서 느꼈던 점은 외형적으로 사원 건축 양식이 한국 전통사찰처럼 목조양식이 아니라 총지종 사원건축 양식처럼 현대적인 건축양식을 하고 있으나, 사원 내부적으로는 전통사찰 못지않게 정교하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어 전통적인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이 잘 융합되어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교육으로 모든 사원에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었으며, 승직자는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직자들이 자신의 소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소임이 포교활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도회 자원봉사자들에게 의해서 운영되어지며, 신도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했던 모든 사원에 교도들이 될 수 있는 찾집 등 휴식공간이 많았습니다. 불광산사의 경우 문화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이 불교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고 영화, 방송, 책, 그림 등 예술활동을 할 때 불교에 호의적인 내용으로 하게 된다며 문화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사원 내에 미술관이 있어 누구나 무료로 전시회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 체험을 통해서 6박 7일 동안 대만불교의 발전과 성공에 대해 배우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내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문이었습니다. 한국의 불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의 포교전도 방법에 대해 많은 불만을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한 인재가 있어야 합니다.

사원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외형적인 조건입니다. 사원건물이 웅장하고 정교하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불광산사의 경우 사원건축에 있어 “유(有)를 바탕으로 정(精)을 추구한다.(먼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외형을 웅장하게 건설하고 내부적으로 정교함을 추구한다.)”고 하여 사원건축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형적인 조건으로 신도 관리와 포교활동 할 수 있는 인재가 많아야 합니다. 대만불교에서는 법랍 위주가 아니라 능력위주로 직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예, 사찰의 주지는 법랍과 상관없이 능력여하에 따라 결정됨) 이러한 능력위주의 지위는 교육을 통해 우수인력을 형성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임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적재적



▲ 불광산사 삼존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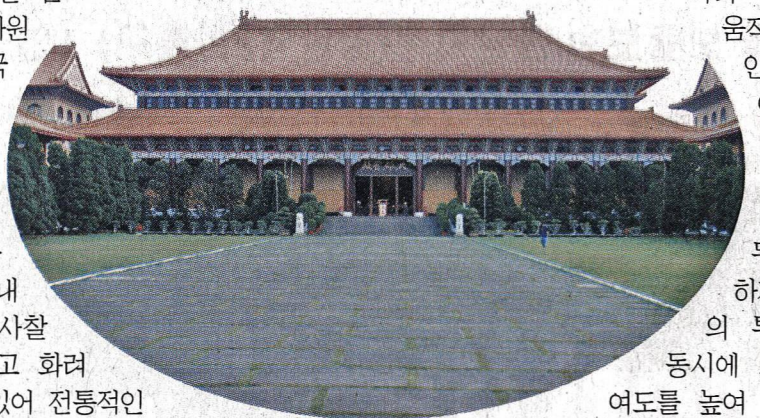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포교전도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불교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전도 포교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 반문해 보았습니. 하지만 그 대답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종단의 교세가 확대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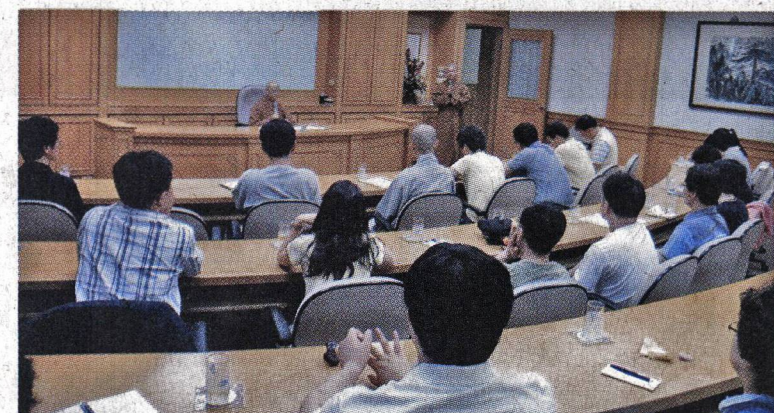
소에 인재, 배치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불교도의 실력을 강조하는 대만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광산사의 경우에도 인재가 있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하여 불학원(강원)을 가장 먼저 건설하였고, 불학원 건설중에도 재자들을 일본에 유학 보내는 등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인 결과 현재 불광산사에는 100명이 넘는 석, 박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불교는 신도관리에 있어서 승가와 재가를 별개가 아니라 사부대중이 함께 움직이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생각하여 사업진행을 승단과 교도가 함께 진행하며, 사원 재정관리도 모두 교도들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재정의 투명화를 꾀하는 동시에 교도들의 사원참여도를 높여 교도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원공간의 반을 신도들이 쓸 수 있는 공간과 신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광산사의 경우 “종단에 있어 신정회와 사원은 두 날개이다.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날아오를 수 없다.”고 하여 사원의 종단과 교도의 공동소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신도교육을 통해 신도들이 자원봉사를 구성하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포교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도관리와 포교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사원이 있어야 하며, 사원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도가 있어야하며, 교도를 모으기 위해서는 교도관리와 포교활동을 할 조직체가 구성되어야 하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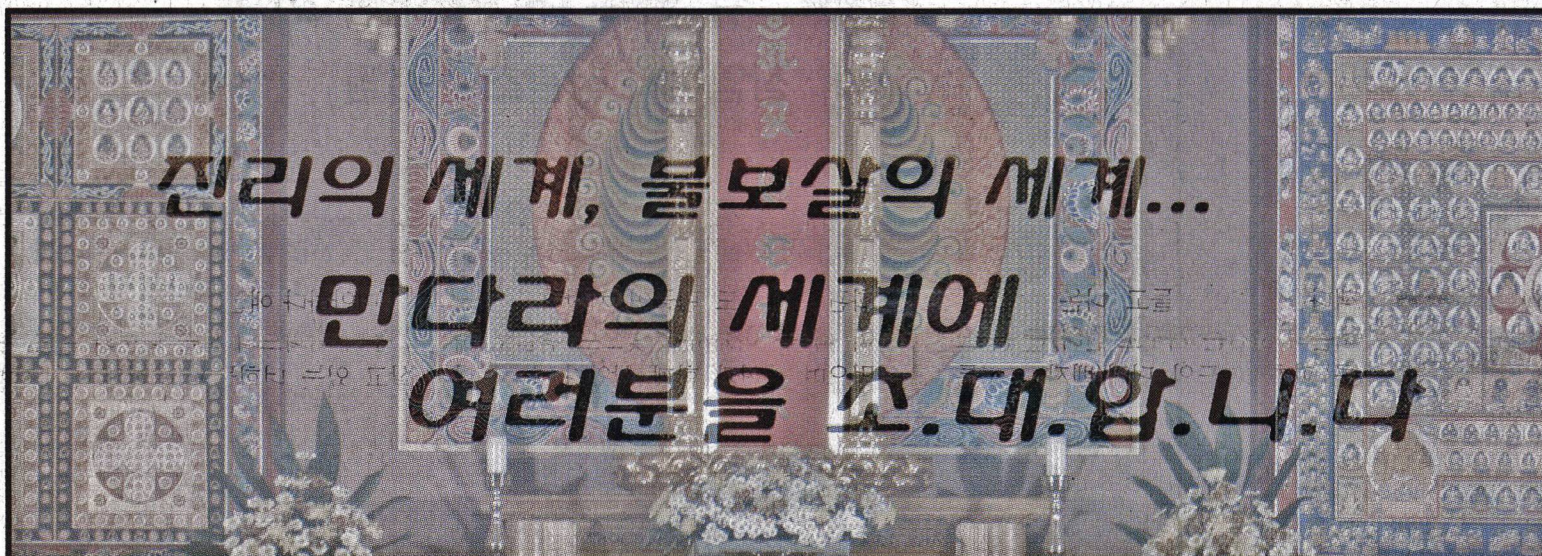
▲ 불광산사 대웅보전.



▲ 불광산사 교육원장 지용스님 강연.

이렇듯 대만불교가 한국불교보다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만불교의 인재양성, 신도관리, 포교방식을 배우면서 이러한 내용을 종단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동욱(통리원)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태장계 만다라 *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개대비야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염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계신,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금강계 만다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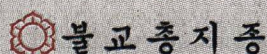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계,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성신의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계신, 연경전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구성표

- ◆ 사이즈 및 가격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 가격 동일)
- ▶ 1000 x 1000 1개 650,000원 (액자포함)
- ▶ 750 x 750 1개 500,000원 (액자포함)
- ▶ 500 x 500 1개 300,000원 (액자포함)
- ▶ 250 x 250 1개 200,000원 (액자포함)

* 문의 : 통리원 T. 02-552-1080~3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80-047811 예) 불교총지종



영화에서 불교보기 ⑤ /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죽음,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하늘이 무너져라 땅이 꺼지라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자식 잃은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인의 슬픔에 대해서 들은 부처님께서도 그녀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절망에 빠진 그녀는 부처님께서 던진 희망에 집착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었나면, 죽음이 없었던 집을 찾아내서 그 집에서 겨자씨를 한 주먹 얻어오면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여인은 그런 집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한 집 두 집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이 내주신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당연히 실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많이 가벼워지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점점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과제를 내주신 것은 죽음은 내게만 오는 문제가 아니고 태어난 것은 모두 죽는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었지요. 태어난 것은 모두 죽어야 하고, 또 인간이라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요. 부자인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요.

그녀가 절망으로부터 고통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운명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고통스러웠는데 차츰 죽음이라는 인간의 조건을 수용하면서 그녀는 마침내 아들의 죽음이라는 극한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죽은 아들을 둔 여인과 같은 운명을 타고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빗 핀치 감독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벤자민 버튼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벤자민(브래드 피트)은 다른 사람과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늙어가면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벤자민은 여든 살 노인네로 태어나

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젊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갓난아기가 돼버립니다.

왜 이런 시도를 했나고요? 영화는 본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에피소드를 하나 끼워 넣었는데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이 시퀀스를 통해서 그 의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벤자민 버튼이 태어나던 날 뉴올리언스 역에는 시계가 걸립니다. 이 시계는 특이하게 거꾸로 가는 시계입니다. 맹인 시계공이 만든 시계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시계를 만



들었다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한 줌의 재가 돼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 당시의 자식을 잃은 어머니처럼 자식을 살리고 싶은 염원을 갖게 됩니다. 그 바람이 얼마만큼 강렬할 지는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두분불출한 채 오직 거꾸로 가는 시계 만들기에 몰두합니다. 시계가 거꾸로 흘러서 자식이 전쟁에 참전하기 이전의 시간, 즉 자식이 죽기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시계공의 염원은 죽음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이 시계공의 죽음에 대한 저항감에서 태어난 아이가 벤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이라

는 존재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거절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태어날과 동시에 늙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는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만약 거꾸로 시간이 흐른다면 어쩌면 영원히 살지 않을까, 죽음 같은 게 우리를 피하게끔 않을까, 하는 발상에서 이 영화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한계상황인 죽음에 대한 인간의 반항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영화는 '거꾸로 가는 시간'이라는 모티브와는 상반되게 영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선장은 총포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죽는 순간 그는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삶이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하고 반항할 수도 있어. 하지만 죽을 앞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받아들이야 해."

인간의 운명에 대한 수용이고, 죽음에 대한 수용의식을 꽤 적절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바다를 떠돌면서 거칠게 살았던 뱃사람의 입에서 나온 성찰입니다.

거꾸로 가는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던 벤자민 버튼 또한 영화 말미에서 강보에 싸인 갓난아기가 돼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거꾸로 가는 시간을 살았던 벤자민도 죽음 앞에서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어야 한다는 다소 목직 한 메시지를 주는 게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간다는 건 판타지에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게지요.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준 메시지는 순리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헐리우드 영화로는 색다른 주제를 들고 나온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포스트 픽처제럴드의 단편(벤자민 버튼의 흥미로운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50여쪽 분량의 단편에서 <포레스트 검프>의 작가 에릭 로스는 모티브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모두 새롭게 꾸몄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흥행영화를 만들었던 작가의 솜씨에서 영화는 불거리기도 풍성합니다.

벤자민이 12살, 데이비(케이트 블랑체)가 6살 때 시작된, 둘의 한평생을 이어가는 인연과 사랑이 영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특별한 삶을 부여받았지만 우리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성장하는 벤자민의 성장과정이나 또 다른 축을 이룹니다. '죽음'이라는 목직할 알맹이를 멜로드라마와 성장기라는 포장지로 싼 격이지요. 그래서 영화는 2시간 30분이라는 긴 상영시간을 갖고 있지만 별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김은주(자유기고가)

세상사는 이야기

싱그러운 시절 추억 어린 보금자리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이 시작 되었다. 그렇게 모두들 긴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재건축이 드디어 시작 되었다.

참 오랫동안 우리 이곳에서 살았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 아파트에 이사하고 지금까지 그냥 이곳에 뿌리 내리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살았다. 이곳에 남편과 함께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사 온 것이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곳이 내 젊음과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푸릇푸릇하고 싱그러운 시절을 보낸 곳이다. 우리 이곳에서 이웃과 함께 외롭지 않게 살았다. 만나면 서로 따뜻하게 인사도 하고 서로를 감사 주고 맛있는 먹을 거리가 있으면 해 가져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곳

어느 날은 아파트 마당에 뺨이 지나가서 입주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도 있었다. 다행히 경비아저씨께서 잘 붙잡아 주어 가슴을 쓸어 내린 적도 있었다. 비가 올 때면 아파트 하수구에서 귀여운 물방개들이 앞 다퉈서 풍 풍 올라와 우리들을 신기한 곤충들의 세계로 이끌었다.

비 오는 날 밤엔 잠에 빠져들 수가 없었다. 개구리, 두꺼비들의 합창소리가 온 아파트에 울려 퍼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한낱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아파트로 둘러 싸여 산도 조금 밖에 보이지 않고 논들도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한 아파트를 떠나 어딘가로 이사를 가야 한다니 마음이 심한해 진다. 공연히 가슴에 큰 돌을 안고 있는 느낌이다. 사

아파트 재건축으로 무상감

"헤어질 때 더 잘해야"

에서 보냈다. 아이들도 아무 탈없이 잘 자라 이전 모두 어른이 되었다.

이곳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했다. 우리가 이 곳에 처음 이사 왔을 때에는 개발이 되지 않아 큰 길 하나만 건너면 논이 펼쳐져 있고 아파트 뒤로 조금만 가면 산이 있어 농촌 풍경이 그대로 펼쳐졌던 곳이다.

8살, 6살, 4살이었던 우리 아이들은 물 만난 고기들처럼 아주 잘 뛰어 놀았다. 뒷산에 올라 각종 들꽃을 꺾어 화관과 팔찌도 만들어 지참하고 숲속이 따운 아카시아 꽃으로 튀김도 해 먹으며 자연과 함께 살았다. 눈에 나가 울렁이를 잡다가 빠져 온 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들어 온 일도 아주 여러 번 있었다.

산딸기가 익을 무렵이면 산에서 산딸기를 따 먹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해가 넘어가 서쪽 하늘이 붉은 색으로 물들 무렵이면 집에 들어 왔다. 아이들의 작은 손엔 늘 몇 알의 산딸기가 쥐어져 있었다. 엄마 입에 털어 넣어준 산딸기의 달콤새콤한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겨울이면 눈 쌓인 뒷산에 올라 문제의 썰매를 지칠 때까지 타고서야 온 몸이 젖은 상태로 친구들과 함께 집에 돌아오곤 했다. 문제의 썰매는 절에 다녀 오느라 아이들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아들이 동생들을 데리고 근처 목공소에서 얻은 나무로 썰매를 만드느라 집안에서 못질을 얼마나 세게 했는지 아래 뒷집에서 아파트에 사고가 난 줄 알고 모두 뛰쳐나오게 한 썰매다.

시시할 창가에서 예쁜 모습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까지도 즐겁게 해 주고 때로는 많은 위로도 해 주던 나무들과도 이별이라니,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 나무들도 우리가 다 이주 한 후 전부 베어져 생을 마감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양중맞고 새빨간 예쁜 열매를 조롱조롱 달고 우리에게 애교로 다가오던 영두와 달콤하고 아삭한 단감, 지두와 살구나무, 모두 모두

"미안하다 애들아."
우리 아파트의 모든 나무와 풀들, 잘 살고 있는 너희들엔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외출했다 돌아온 나는 깜짝 놀랐다. 오늘 5층에서 이사를 갔다. 앞의 큰 나무가 베어지고 그 옆의 나무는 뿌리가 뽑히려 하고 있다.

베어진 나무는 이리저리 널브러져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다. 난 나무의 죽은 잔해를 보는 것 같아 차마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난 5층에서 이사 가며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아마도 이삿짐센터 아저씨들이 사다리 놓기가 불편해서 그랬으리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다른 아파트라도 그랬을까? 아직 떠나지 않고 뒤에 남아 있는 타인을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걸 보며 아파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도 조금은 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들은 같이 있을 때 보다 헤어질 때 더 잘 해야 할 것 같다.

-박요정

충지중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바라밀 공부방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차상위 아동

프로그램

- 학습활동 : 국어, 수학, 영어, 한문
- 신체활동 : 요가, 태권도
- 문화활동 : 영화보기, 비디오상영
- 특별활동 : 컴퓨터, 미술수업
- 급식제공 : 일일1회석식제공, 간식제공
- 홈페이지 : happylog.naver.com/baramil.do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신장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 진언행자를 찾아서 || 동대문 밀인사 이연수 보살

“찬불(讚佛)은 부처님 은혜 갚음입니다”



큰 재를 넘고 나서 거개의 사람들은 되돌아 보며 한 숨을 내쉬고는 “저렇게 큰 고개를 어찌 넘어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것이다. 인생길도 그러할 터.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라면 살아온 길을 회고해 보면서 그 많은 난관을 어떻게 헤쳐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 겪는 갖가지 고초만 본다면 낙담하기 쉽다. 자포자기해서 세상을 등지기도 한다. 이런 연고로 세상의 종교들은 참고 또 참아야 한다며 인(忍)을 강조해 왔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此岸)을 사바세계(娑婆世界)라 하여 견디며 참고 사는 세상-감인토(堪忍土)라 간주했다. 선지자들은 거기에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현명함을 함께 주문하기도 했다. 이제 얘기하려는 사람도 세상을 건너는 데 꼭 필요한 감(堪)·인(忍)·대(待)를 아는 사람이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총지중 통리원 2층에선 아름다운 화음이 흘러 나온다. 어느 날은 “보리밭 사잇길로~”가 들리고, 또 어느 때엔 “하룻동안 행복함은~”이 들린다. 노래 시작한 창교가, 끝은 회향가다. 종단의 행사날엔 어김없이 가흥빈가(迦陵頻伽)로 나타나 음성공양을 올리는 총지중 서울경인 합창단이 내는 소리다.

“노래하면 생기가 돌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샘솟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불원천리(不遠千里)하고 모이는 것도 노래를 부르며 나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밝고, 활기찬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죠.”

동대문 밀인사 이연수(63, 법명: 복지원) 보살. 서울 경인 합창단장, 서울 경인 지회 총무, 밀인사 총무 등 중책을 맡아 종단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있다.

이 연수 보살과 총지중과의 인연은 총기 1년부터다. 그러니 종단 안팎을 두루 살피고, 성에 차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고언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만큼 애중심도 남다르다. 보살은 '72년도에 동대문 밀인사 무사각 전수의 교화로 입교하게 되었다.

당시 남편(윤 건우 각자. 67)은 이를 모를 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밤이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음식섭취를 못하는



상태가 지속됐다. 보살은 부처님께 매달렸고 신기하게도 남편은 보살이 불공을 올리는 시간만은 조용히 잠을 잤다.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이 밀인사를 다니게 되었다. 사원엔 지금 기로원에 주석하는 법장화 스승이 주교로 재임하고 있었다. 법장화 스승과의 만남은 이 연수 보살의 수행과 삶에 큰 이정표가 되었다. 그때 법장화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한다.

“자네 같은 사람은 일단 절에 나오기만 한다면 뿌리를 내리고 불은(佛恩)을 받을 사람이야. 여일하게 수행하게. 한 가지 일러 줄 말은 복은 밤새도록 굴러 다니다가 대문을 먼저 여는 사람에게 들어 온다네.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게.”

이때부터 보살은 이른 새벽 일어나 제일 먼저 불공을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 그러기를 1년여. 남편은 건강을 온전히 회복했다.

한 고개를 넘으니 이번엔 생활고가 찾아 왔다.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일을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질 않았다. 고3이었던 큰 딸의 고등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칼라TV를 내다 팔았다. 힘

은 판사고 의사여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는데 불행히 아이가 자폐아였다. 그들은 보살에게 정식 보조교사 교육을 받게 해 주고,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머물며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었다. “불공을 하면 고마운 분들이 생겨나지요. 마치 신장님처럼 가는 곳마다 사연과 고충을 들어 주고 음으로 양으로 후원해 주는 분들 말이예요.”

것은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일이고, 우리가 부처님께 받은 은혜 갚는 길이기도 합니다.”

보살도 그렇게 화(和)·해(解)를 하는 듯 보인다. 세상과 사람들과 자기를 얽어맨 모든 번뇌와 장애들과, 그리고 자유를 얻었을 것이다. 노래를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모든 것이 변하고 무상하다는 가르침대로 인생도 영고(榮枯)를 거듭하는 것이리라. 실타래 풀리듯이 주위의 어려움이 해결되어 갔다. 불공해서 얻은 막내 아들은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고, 외교관 면직을 얻고, 큰사위는 은행고위직이 되었다. 둘째딸은 항공기 승무원이 되어 고생만 한 어머니를 모시고 외국 여러 나라 여행을 시켜 줬다고 한다.

“불공하면 고마운 분들이 나타나지요” 감(堪)·인(忍)·대(待)를 아는 이

들어도 내색하지 않았다. 아예 그럴 사이가 없었다. 보살은 한 마디로 말했다. 살아야 했다.

힘한 세과속에서도 보살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공양하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 불공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을 때에는 잠을 줄이고 오가는 차중에서 불공했다.

그렇게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생활하는 일과 불공하러 절에 다니는 일 말고는 하루도 다른 일은 못해봤다. 경치 좋은 곳에 구경가지 못했고 맛 좋은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다. 일 년에 한 차례 절에서 방생하는 날이 보살에게 나들이고 보살이 자신에게 허용한 호사였다.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는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가 나왔다. 그 사람들

이 연수 보살의 요즈음 발원은 여생을 절과 합창단, 종단, 그리고 일체 모든 중생에 까지 두루 미치는 보시행을 하며 보내는 것이다. 보살은 사원 피아노 봉사하기 위해 수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화원을 다니기도 했다. 요즘엔 월초불공때마다 교도들에게 새로운 찬불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한다.

작년 초부터는 합창단장을 맡아 대내외에 종단을 알리고 부처님 말씀을 아름다운 화음에 실어 전하고 있다. 서울 경인 합창단은 인기가 많아 각 종단의 음성공양 요청도 곧잘 들어 온다고.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노래했으면 합니다. 찬불가엔 부처님 법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불가를 한다는

한 번도 “NO” 한 적 없이 열심히 사니까 끝이 있더라며 보살이 말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총지중을 만나고 진언수행을 한 덕택으로 입때껏 무사히 지내을 수 있었습니다. 이젠 제가 받은 선근 공덕을 돌려 줄 차례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남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할 생각입니다. 부처님과 나와 인연된 모든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 윤우채 기자

1)아미타경(阿彌陀經) 등에 따르면 가흥빈가는 극락 정토의 설산(雪山)에 살고, 머리와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 하반신과 날개·발·꼬리는 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울며, 춤을 잘 쳐서 호성조(好聲鳥)·모음조(妙音鳥)라는 별명이 있다고 한다.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중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 모집시기 : 수시
- ◆ 연습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연습장소 : 총지사
- ◆ 연락처 : 이연수 단장

02)552-1080~3(대)

